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2000-14



# 2022 제20회 한국농촌 계획대전 수상작품집

20th KOREAN RURAL PLANNING COMPETITION 2021

|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농촌계획학회

| 후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2022 제20회 한국농촌계획대전

20th KOREAN RURAL PLANNING COMPETITION 2022

---

## CONTENTS



1. 공모소개 05

2. 공모요강 07

주제 / 전시 / 시상

3. 공모전 대상지 정보 11

4. 심사평 29

---

5. 수상작품 42

대상 / 우수상 / 장려상

6. 진행과정 91

갤러리 / 포스터





# 2022 제20회 한국농촌계획대전

20th KOREAN RURAL PLANNING COMPETITION 2022

# 1. 공모소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촌계획 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농촌진흥청이 후원하는 한국농촌계획대전은 우리나라 농촌마을의 공동체 형성 및 마을발전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공모전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한국농촌계획대전은 농촌지역의 생태,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의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고, 농촌 주민에게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주거 및 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농촌재생, 살고 싶은 젊은 농촌 만들기』를 주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농촌다움을 회복함과 동시에 젊은 농촌공간의 재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

## 공모요강

---

청년층 유출, 초고령 사회 진입, 마을 과소화 등으로 농촌지역은 공동화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농촌의 경제적 활력 저하는 일자리 부족을, 인구 감소는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의 폐쇄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축사 등의 환경유해시설의 난립, 빈집·유휴시설의 증가는 농촌 경관을 훼손하고, 정주여건을 악화시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새로 인생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귀농·귀촌 수요가 증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농촌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주목 받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를 뒷받침해 줄 농촌공간의 재생이 필요합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농촌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에게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주거 및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농촌다움을 회복함과 동시에 살고 싶은 젊은 농촌 공간을 재생시킬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합니다.

## 공모 주제

### 농촌 재생, 살고 싶은 젊은 농촌 만들기

- 농촌 재생을 통해 청년 및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증진과 동시에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은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개선, 환경유해 시설 개선 및 유희시설 등의 공간 활용

## 공모 목적

농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인 농촌 공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아이디어 적용을 통해 회복된 농촌 마을의 미래상을 홍보

## 주최 및 주관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촌계획학회  
 후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운영위원

성명	소속	비고
배승중	서울대학교	운영위원장
박진욱	계명대학교	
유도일	서울대학교	
이상현	충북대학교	
서인국	한국농어촌공사	
최진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우리	농림축산식품부	



## 공모 대상지

<b>경기</b> 안성	생활권명	동부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주소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일원		
<b>강원</b> 평창	시설명	남부기초	담당부서	유통산업과
	주소	강원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b>충북</b> 제천	시설명	의림	담당부서	농촌상생과
	주소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일원		
<b>충남</b> 청양	시설명	청양	담당부서	농촌공동체과
	주소	충남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일원		
<b>전북</b> 김제	시설명	서부	담당부서	먹거리활력과
	주소	전북 김제시 만경읍 남리 일원		
<b>전남</b> 화순	시설명	동부	담당부서	건설과
	주소	전남 화순군 동면 장동리 일원		
<b>경북</b> 청도	시설명	금천	담당부서	새마을과
	주소	경북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일원		
<b>경남</b> 고성	시설명	북부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주소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일원		

## 공모 자격

농어촌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인

- 개인 또는 팀(5인 이내)으로 구성
- 개인(팀) 당 1개 작품만 응모 가능하며, 팀 구성 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함
- 농촌 공간분석, 정책제안, 지역계획 및 디자인 등 각 분야 간 다양한 협업 권장

## 심사위원

김상욱 | 심사위원장 · 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

유찬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남수 | 공주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정해준 |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교수

홍석영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 공모 일정

구분	일정	주요사항
참가 신청 접수	05월 30 (월) ~ 07월 22일 (금) 18:00까지	홈페이지 접수
1차 작품 접수	08월 01일 (월) ~ 08월 05일 (금) 18:00까지	참가 신청자(팀) 08월 06일 ~ 08월 15일 (10일간 표절온라인공개검증)
1차 심사	08월 17일 (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
2차 작품 접수	08월 24일 (수)	1차 심사 장려상 통과자(팀)에 한함
2차 심사	08월 24일 (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
수상작 발표	09월 01일 (목)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전시회	09월 27일 (화) ~ 10월 03일 (월)	서울매트로미술관 제1전시관
시상식	전시기간 중 1일	서울매트로미술관 제1전시관

## 시상 내역

구분	수량	상장	상금
대상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500만 원
우수상	2	농촌진흥청 청장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각 200만 원
장려상	4	한국농촌계획학회 학회장상	각 100만 원
입선	다수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기념품

# 3.

## 공모전 대상지 정보

---

- 동부 경기 안성시
- 남부기초 강원 평창군
- 의림 충북 제천시
- 청양 충남 청양군
- 서부 전북 김제시
- 동부 전남 화순군
- 금천 경북 청도군
- 북부 경남 고성군

## 동부 경기 안성시

### 사업의 배경

#### 동부생활권 주민들 대상 의료 환경 개선 및 생활 SOC 시설 확충 필요

- 동부생활권은 풍족한 생활 인프라가 확충된 동지역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생활권 내에 위치한 생활 SOC 시설을 주로 이용함
- 관내 인프라 시설 이용률이 높은 반면 생활권 내에 생활 SOC 시설들이 고루 분포하러 있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낮거나,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생활권으로 분류되며 특히 보건 의료·응급시설이 가장 취약함

#### 안성시 생활권 중 동부생활권 내에 가장 많은 축사, 태양광 등의 난개발 요소로 인한 환경문제

- 안성시 농촌공간의 여러 가지 난개발 요소 중 축사의 17.9%와 태양광발전소의 30.5%가 일죽면 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로 인행 자연경관 및 마을 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 농촌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여 농촌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 고려 필요

#### 농촌공간 활성화 계획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간 네트워크 형성 필요

-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개발을 통한 공동체 활력 및 주민역량 강화 필요
-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 중간지원조직, 행정 등이 목적과 가치를 공유

### 사업의 목적

#### 생활 SOC 시설 확충을 통한 동부생활권 생활서비스 복합 개선 추진

- 읍면별 부족한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촌공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동부생활권에 가장 취약한 보건 의료, 복지 생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읍면별 거점시설을 선정하여 다른 시설과의 연계로 거점시설로서의 기능 강화

#### 농촌 경관 관리 및 환경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통한 농촌 경관 정비 및 개선

- 동부생활권 내 난개발 요소들을 한 곳에 집적화시켜 산업 효율성 극대화하고 난개발 요소 관련 민원 해소로 농촌공간 정비 및 환경 개선
- 호수 관광자원, 자연경관자원 등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인근 마을 경관 개선 도모

#### 동부생활권 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네트워크 형성 도모

- 사업의 주체인 주민 및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
- 농촌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행정·지원조직, 농촌 협약 거버넌스 등 관련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성공적인 농촌 협약 추진 및 공동체 활성화

## 동부 경기 안성시

### 공간적 범위

안성시 삼죽면, 죽산면, 일죽면

- 삼죽면 : 27개 행정리, 10개 법정리, 48개 반
- 죽산면 : 35개 행정리, 10개 법정리, 94개 반
- 일죽면 : 43개 행정리, 15개 법정리, 117개 반



[ 그림 2-1. 동부생활권의 범위 ]

## 남부기초 강원 평창군

### 사업의 배경

남부생활권 4개 읍·면 초고령사회 진입, 인구감소에 따른 과소화·공동화 문제 대두

- 남부생활권 4개 읍·면(평창읍·미탄면·방림면·대화면) 총 96개 행정리 중, 약 90.6%(87개 행정리)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 미탄면과 방림면, 27개 모든 행정리가 초고령 사회 진입
- 특히, 산악지형을 이용한 주요 관광산업이 북부 공유 생활권에 집중되며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주변 도시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남부생활권 구성 지역 간 계층 격차 심화, 1계층에 집중되는 지역 서비스

- 면 지역 인구의 고령화·과소화·인적 자원 감소로 인해 지역 서비스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남부생활권 내 1계층인 평창읍에 문화·복지·의료·행정서비스 등 기초 생활 서비스 기능이 집중되며 읍·면지역 간 계층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음.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중·장년층과 고령층 등 일부 계층에 집중되며, 생활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 계층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평창군 어디에서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계획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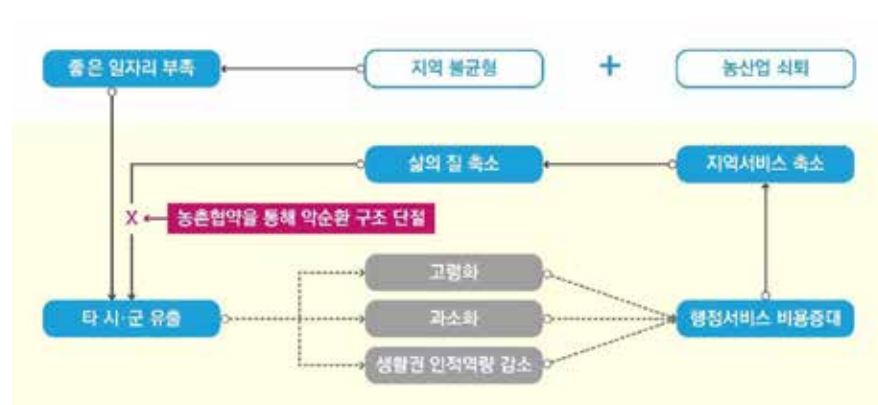
- 평창군 남부생활권 지역여건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생활권 내 지역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미래 모습을 그려내어 이에 도달하기 위한 기초 생활서비스 제공 계획이 필요함

### 사업의 목적

생활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남부생활권 지역여건 및 인구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라는 학순환 구조를 단절하기 위해 '농촌 협약' 제도를 도입, 정주여건 개선·공동체 활성화·농촌 경제 활력 제고 과제와 계획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평창군 남부생활권 활성화계획 배경 및 목적 ]



※ 출처 :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KREI, 2017」 기반 연구자 재구성

## 남부기초 강원 평창군

### 공간적 범위

평창군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 평창읍 : 41개 행정리, 31개 법정리, 143개 반
- 미탄면 : 13개 행정리, 9개 법정리, 55개 반
- 방림면 : 14개 행정리, 3개 법정리, 54개 반
- 대화면 : 28개 행정리, 5개 법정리, 94개 반



## 의림 충북 제천시

### 사업의 배경

#### 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의한 우선 생활권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농촌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농촌 공간 중 장기 발전 계획으로서 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함
- 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에서 설정한 우선 생활권의 발전 구상과 세부 추진과제를 세부사업으로 구체화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함

#### 의림 생활권의 365생활권 구현을 위한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 제천시 상위 고차 서비스 거점인 동지역이 위치한 의림 생활권의 365생활권 구현을 위해 농촌 중심지 및 기초 생활거점지의 중저차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생활서비스 공급 거점 역할 강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함
- 제천시 중추 생활권인 의림 생활권의 중고차 생활 서비스 확충과 동시에 배후지역으로의 전달 체계 구축 강화를 통해 생활권 간, 읍면동 간 연계발전할 수 있는 활성화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사업의 목적

#### 의림 생활권 365생활권 구현을 위한 활성화 계획 수립

- 의림 생활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5년 단위 실행 가능한 활성화 계획과 365생활권 구축을 위한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함
- 정책 과제에 기반한 농촌 협약 대상 사업과 기능적, 공간적으로 연계 가능한 타 부처 사업, 지방이양사업, 제천시 자체 추진 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성화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생활권 내 정주 계층 간 생활서비스 기능 연계 강화

- 의림 생활권 내 동지역(상위고차 서비스 거점) - 중심지(상위 거점) - 기초 거점(하위 거점) - 배후 마을 간 생활서비스 공급 및 전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생활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정주 계층 간 생활서비스 기능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함

####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

- 지방분권, 농촌 협약 제도 추진 등 농촌지역개발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 협약 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함



## 의림 충북 제천시

### 공간적 범위

제천시 봉양읍, 금성면, 청풍면, 백운면, 송학면, 동지역

- 봉양읍 : 33개 행정리, 0개 법정동, 99개 자연마을
- 금성면 : 16개 행정리, 0개 법정동, 65개 자연마을
- 청풍면 : 20개 행정리, 0개 법정동, 64개 자연마을
- 백운면 : 22개 행정리, 0개 법정동, 47개 자연마을
- 송학면 : 18개 행정리, 0개 법정동, 58개 자연마을
- 동지역 : 0개 행정리, 28개 법정동, 82개 자연마을



## 청양 충남 청양군

### 사업의 배경

####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

- 충청남도 지역은 북부를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군은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인접 시·군으로의 인구 유출 가속, 정주여건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청양군은 인구 추정 결과 약 3만 명의 인구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청양읍(1계층)에 밀집하며, 면지역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복지 대상이 주로 청양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양읍 생활권 내 5,756명(군 전체 인구의 68.7%)의 사회복지 대상이 거주 중
- 낮아지는 시설 이용률과 고령화에 따른 이동력 감소에 대처하여 서비스 시설 복합·밀집화 및 청양읍에 밀집된 생활 SOC의 서비스를 생활권 및 군 전체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정책 과제 및 추진 사업 연계를 통한 균형 발전 토대 구축

- 농촌 협약 대상 사업 및 각 부처 정책사업 간 연계를 통해 통합적 중장기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청양읍 내 주요 생활 SOC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외에 부족한 생활 SOC를 보완하기 위해 가족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 푸드 플랜, 지역 균형 발전사업의 일환인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사회적 공동체 특화 단지 조성 등이 진행 중임
- 청양읍에 분포하거나 향후 조성되는 생활 SOC와 청양읍 생활권을 연계하고 향후 서비스 제공이 정산면 생활권까지 확산되는 방안이 필요함
  - 청양읍 생활권 내 청양읍을 포함한 6개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군 전체 인구의 69.7%로 실질적인 사업의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

#### 새로운 기술에 대응한 농촌 지역의 활성화 방안 구축

- 농촌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농촌 경제의 다변화·농촌 서비스 개선 등의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부분까지 ICT를 접목하여 e-교육, e-의료, 자율주행 차량 등의 실현에 대비하고,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기술혁신과 변화하고 있는 여건들을 접목하여 농촌지역의 축소지향의 질적 발전, 스마트 공간 시설과 생활서비스 개선 등을 현실화함

### 사업의 목적

####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정책목표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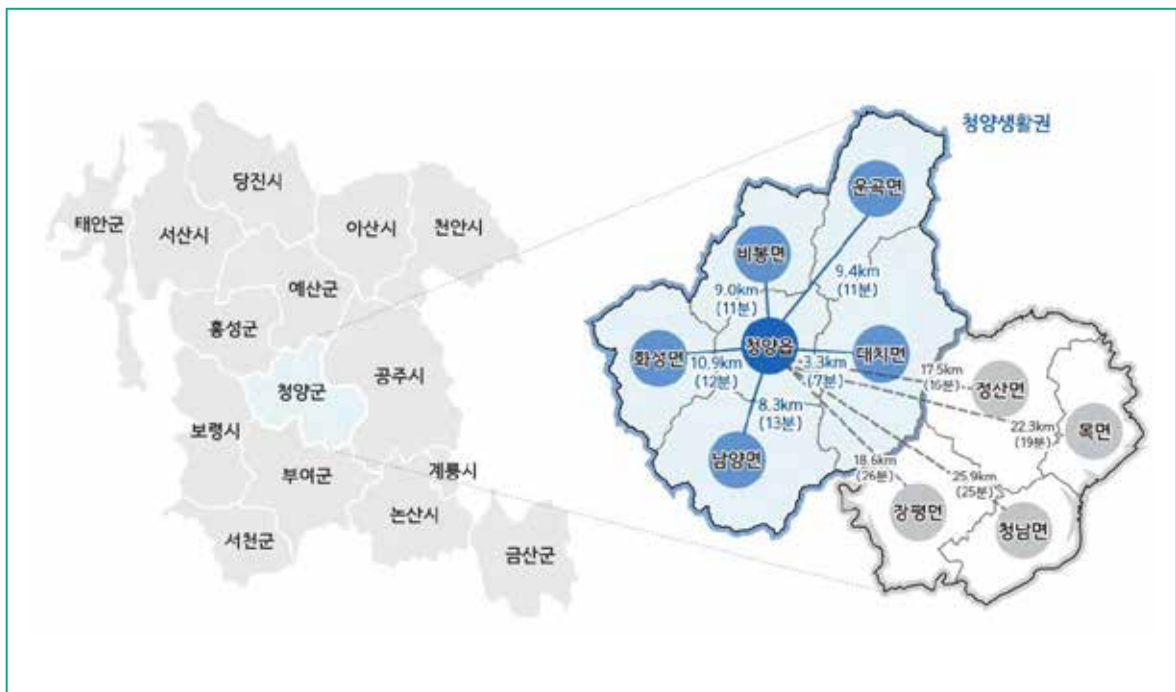
- 자치분권, 지방이양 등 변화하는 정책 변화에 대응하며, 행정·주민·중간지원조직 및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적인 구조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 청양 충남 청양군

### 공간적 범위

청양군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

- 청양읍 26개, 행정리 11개, 법정리 105반
- 운곡면 15개, 행정리 9개, 법정리 68반
- 대치면 17개, 행정리 16개, 법정리 57반
- 남양면 27개, 행정리 12개, 법정리 101반
- 화성면 15개, 행정리 12개, 법정리 78반
- 비봉면 14개, 행정리 10개, 법정리 66반



## 서부 전북 김제시

### 사업의 배경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생활서비스 불균형 심화

- 김제시 동지역은 전체 면적의 14.0%(76.2km<sup>2</sup>)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50.8%, 기초·복합 서비스 기능 시설의 43.7%가 밀집되어 있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광활한 평야지대가 형성된 서부생활권은 넓게 펼쳐진 농경지로 인해 농가 수가 많아 김제시 전체 생활권 중 인구감소율과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이며, 농촌지역 과소화 및 농촌공간 정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서부생활권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자원을 통한 지역 활성화 필요

- 지역의 다양한 잠재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용 또는 연계성 극대화 필요
- 기 추진 사업 등으로 조성되었으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이나 농촌의 빈집 등 유휴자원의 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서부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필요

- 김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에서 설정한 우선 생활권의 발전 구상과 세부 추진과제를 세부사업으로 구체화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함

### 사업의 목적

#### [농촌 정주권 강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우선 공급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촌 정주권 강화

- 중점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 기능 도출을 통해 농촌 서비스 기준 미달성 지역의 지원과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SOC 서비스 제공
- 상위 거점인 민경읍은 농촌 중심지로서 중·고차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여 하위 거점 지역의 서비스 수요를 수용함과 동시에 6개 하위 거점지역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

#### [거점 간 연계성] 상위-하위 거점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균형 있는 공간 발전

- 서부생활권 지역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거점 단위로 공간을 재구성하고, 상위 거점-하위 거점 간 상호기능 연계를 강화하여 농촌지역 어디서나 불편 없는 365 생활권 구현

#### [인구 유입 및 보전 유도] 인구 유입 및 유지를 위한 정착 환경 개선 및 농촌 경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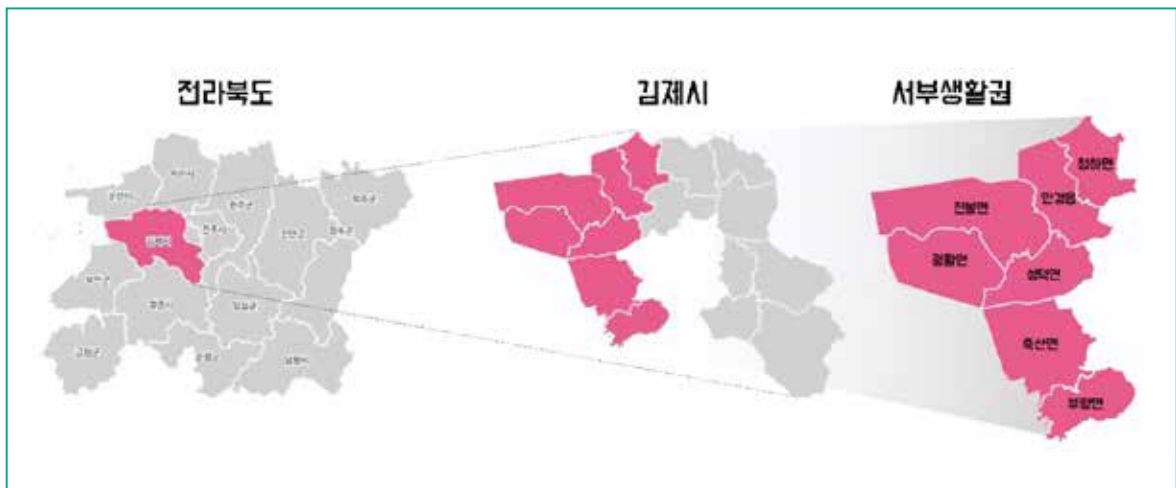
- 서부생활권 인구추계 결과 전반적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만경읍과 부량면은 다양한 연령대가 거주하고 있어 부족한 생활 서비스 공급 및 젊은 가족단위 정착 환경 개선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식량작물 생산 중심의 서부생활권은 신성장동력 약화로 인구감소가 연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촌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서부 전북 김제시

### 공간적 범위

김제시 만경읍, 죽산면, 부량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 만경읍 38개, 행정리 7개, 법정리 69반
- 죽산면 48개, 행정리 8개, 법정리 92반
- 부량면 27개, 행정리 7개, 법정리 56반
- 청하면 28개, 행정리 5개, 법정리 52반
- 성덕면 31개, 행정리 6개, 법정리 57반
- 진봉면 40개, 행정리 5개, 법정리 73반
- 광활면 40개, 행정리 3개, 법정리 20반



## 동부 전남 화순군

### 사업의 배경

#### 화순군 동부생활권에 대한 생활 SOC 우선 개선 필요성 대두

- 화순읍 연계 동부생활권은 「화순군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통해 서비스 이용 현황· 수요 현황· 연계구조· 계층구조· 서비스 접근 현황· 인프라 취약성 등의 '생활 SOC 공급'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생활권으로 구분되었음

#### 동부생활권 내 상위·하위 거점 간 역할 설정 필요

- 동면은 동부생활권 중 유일한 상위 거점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순읍에 인접하여 동부생활권 중심지 역할은 부족한 편임. 동북면은 지리적 중심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문화·복지·보유·교통 등에서 중위거점 역할이 부족함

#### 취약 배후 마을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중간 거점 기능 강화 필요

- 이서면, 백야면, 동북면, 사평면 등 생활서비스 취약지역과 만족도 하위 기능 시설에 대한 서비스 인프라 및 기능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생활서비스 거리 접근성이 미흡한 화순군 동부생활권에 대한 기초 생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중간 거점 육성이 필요함

#### 지역의 다양한 잠재자원의 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 활성화 필요

- 농업·농촌자원, 수변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지역의 다양한 잠재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용 또는 연계의 극대화가 필요함
-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시설이 조성되었으나 활용하지 못하는 하드웨어 시설이나 농촌 빈집·빈 공간 등 농촌 유휴자원의 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가 필요함

### 사업의 목적

#### 농촌 협약 체결을 위한 "화순읍 연계 동부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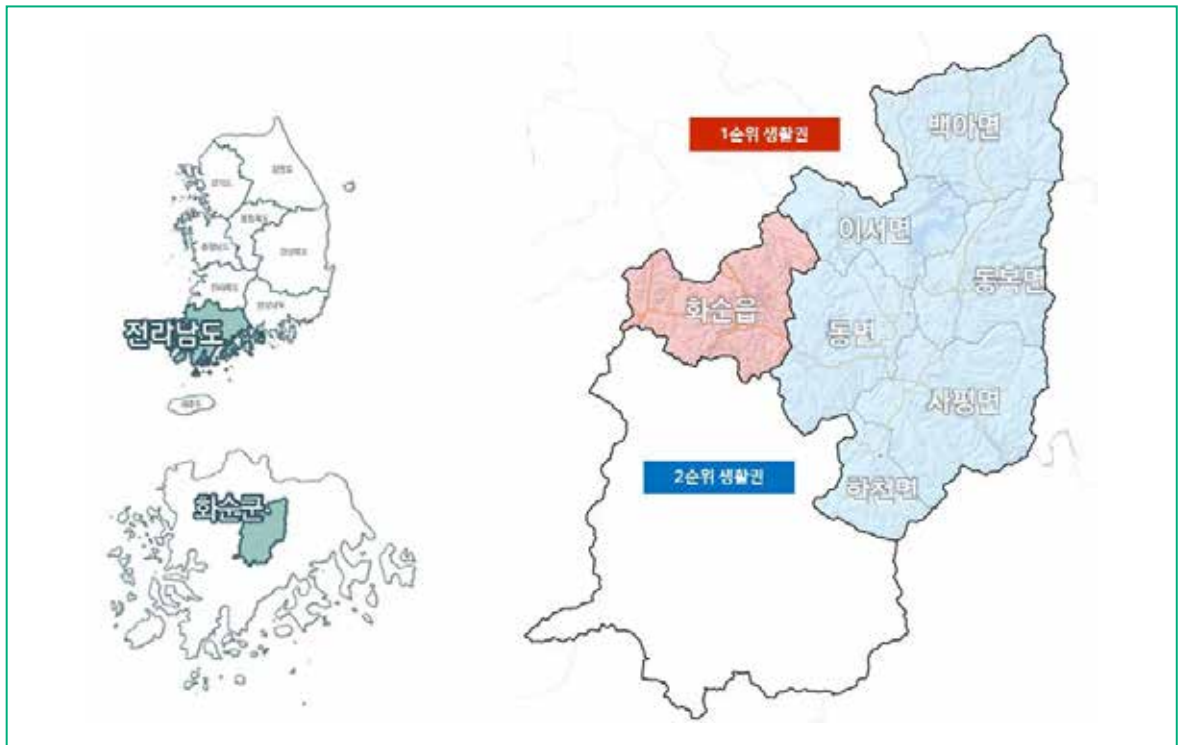
- 화순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중 화순읍 연계, 동부생활권을 대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
- 향후 20년간을 목표로 수립된 화순군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화순군 생활권 중 취약한 부분이 많은 동부 생활권을 대상으로 향후 5년을 목표로 활성화 계획 수립함
- 화순읍 연계 동부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목적을 정함
  - 농촌다움 보전 및 생활 SOC 서비스 격차 해소 등 정주여건 개선
  - 생활권 단위의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모색
  -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민·간, 지역주민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중심지 기능 강화 및 하위 거점 조성 및 기능 확충을 위한 연계 구조 강화

## 동부 전남 화순군

### 공간적 범위

화순군 화순읍, 한천면(영외), 이서면, 백아면, 동북면, 사평면, 동면

- 화순읍 : 행정리 73개, 법정리 25개
- 한천면(영외) : 행정리 9개, 법정리 5개
- 이서면 : 행정리 15개, 법정리 12개
- 백아면 : 행정리 22개, 법정리 16개
- 동북면 : 행정리 22개, 법정리 12개
- 사평면 : 행정리 29개, 법정리 16개
- 동면 : 행정리 34개, 법정리 15개



## 금천 경북 청도군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청도군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에 따른 취약 생활권에 대한 5년 단위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 청도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중 청도군 일반현황 및 농촌공간 현황 분석 결과에 의해 청도군 단일 생활권 형성을 위한 우선 지역을 선별하여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단기적 실행계획 성격인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농촌 경제 활력 제고, 농촌다움 회복 등 추진 전략에 대한 실행 계획 수립

#### 청도군 단일 생활권 형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활성화 방안 마련

- 청도군 농촌 생활권의 지역여건, 추진현황, 취약분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한 실행적이고 현실적인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상위 거점 및 중간 거점 선별 후 취약분야의 생활 서비스를 개선하여 필수 시설에 대한 365 생활권을 구축하고, 일관된 목표에 따른 종합적 계획을 통해 농촌 경제 활력 제고, 농촌다움 회복 등 농촌공간 전략 계획에서 도출된 추진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 마련

#### 5년간의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5년간 시행하게 될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추진체계 및 추진 여건을 마련하고, 단기간 이뤄지는 활성화 계획에 대한 운영, 사후관리 등 지속 가능하며,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주민 중심의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공간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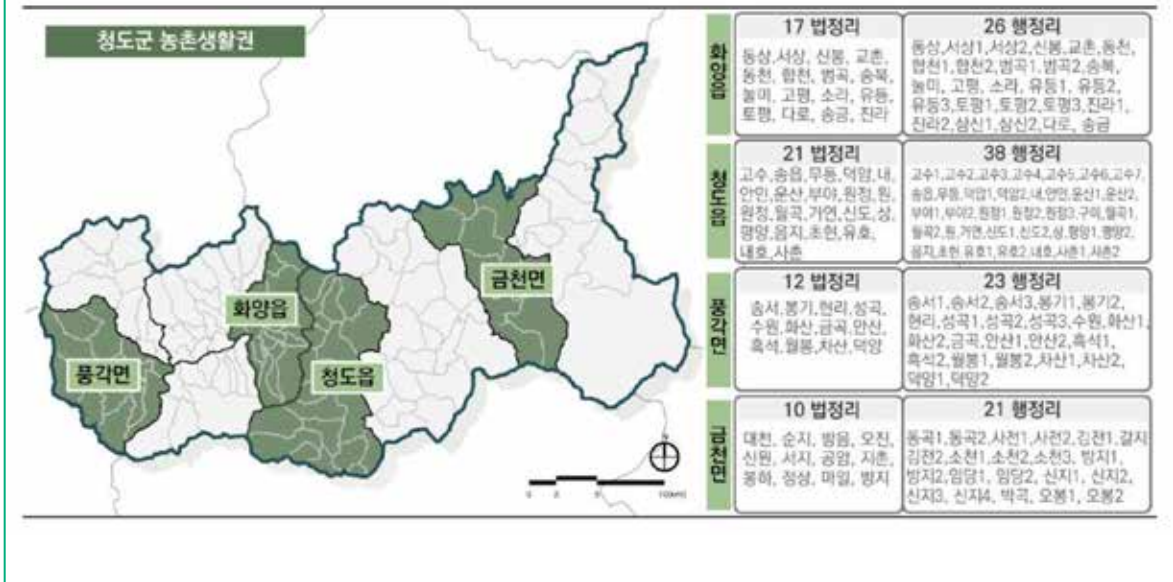
# 금천 경북 청도군

## 공간적 범위

청도군 청도읍, 화양읍, 풍각면, 금천면

- 청도읍 : 38개 행정리, 21개 법정리, 224개 자연마을
- 화양읍 : 26개 행정리, 17개 법정리, 145개 자연마을
- 풍각면 : 23개 행정리, 12개 법정리, 130개 자연마을
- 금천면 : 21개 행정리, 10개 법정리, 95개 자연마을

[그림 II-1] 금천생원권 행정구역 현황



## 북부 경남 고성군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인구감소와 지역 경제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365생활권 필요성 대두

- 급변하고 있는 고성군의 인구·산업구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성군 농촌 공간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365생활권 실현을 위한 2개 생활권(북부, 남부) 설정
- 우선 생활권 내 농촌공간 구조(축, 거점, 권역) 특성과 읍·면 간 연계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여 고성군 농촌공간 여건 변화 대응과 농촌 생활권 생활서비스 개선 등 실행전략 마련

#### 북부생활권에 대한 우선 사업 필요성 대두

-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은 농촌공간 전략에서 설정된 우선 생활권을 범위로 지역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과제를 발굴
- 북부생활권은 고성군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통해 서비스 이용 현황, 만족도 현황, 연계 구조, 계층구조, 서비스 접근성 현황, 쇠퇴 분석 등을 분석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우선 사업을 통한 생활권 활성화가 시급한 생활권으로 나타남

#### 거점 간(상위-중간-기초) 연계성 강화를 통한 균형 있는 공간 발전

- 공간구조, 접근성, 만족도 분석 등 농촌공간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위 거점 - 중간 거점 - 기초 거점 간 상호기능 연계를 강화하여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365 생활권 구현
- 북부생활권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여 협약 대상 세부사업으로 구체화하고, 대상 사업들을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공간(거점) 단위로 재구성, 공간(거점) 간 연계·확산되는 연계 구조 강화

####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연계를 통한 농촌 생활권 활성화

- 사업 이행을 위한 지역주민, 관련 부서,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종료 후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 거버넌스 구축

## 북부 경남 고성군

### 공간적 범위

고성군 회화면, 영오면, 동해면, 개천면, 구만면, 마암면, 영현면

- 회화면 : 16개 행정리, 6개 법정리, 28개 자연마을
- 영오면 : 15개 행정리, 7개 법정리, 23개 자연마을
- 동해면 : 22개 행정리, 9개 법정리, 49개 자연마을
- 개천면 : 17개 행정리, 9개 법정리, 27개 자연마을
- 구만면 : 14개 행정리, 6개 법정리, 23개 자연마을
- 마암면 : 17개 행정리, 9개 법정리, 48개 자연마을
- 영현면 : 16개 행정리, 8개 법정리, 20개 자연마을





# 4.

## 심사평

---

### 심사위원

- 김상욱 | 심사위원장 · 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
- 유찬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남수 | 공주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 정해준 |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교수
- 홍석영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 김상욱

심사위원장 · 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

올해로 20년을 맞는 한국농촌계획대전의 주제는 '농촌 재생, 살고 싶은 젊은 농촌 만들기'입니다. 농촌의 재생이란, 청년층의 유출, 초고령화, 마을의 과소화, 그리고 폐공가의 증가로 인한 마을 경관 및 정주 여건의 악화 등 쇠퇴하는 농촌을 대상으로,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촌 재생의 큰 흐름 안에서 살만한 농촌 그리고 젊은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청년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났습니다. 작년(41개 팀)에 비하여 약 1.5배에 가까운 출품작(62개 팀)들이 경쟁을 하였으며, 나름의 노력과 열정이 담긴 작품들 중에서 지역과 마을이 지닌 특성을 도출하고 차별화하며 젊은 시각과 도전정신을 창의적으로 풀어낸 본선 작품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농촌계획대전의 과거 여러 작품들이 공간계획이라는 틀에 함몰되어 새로운 시설물의 도입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올해의 작품들은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귀농·귀촌을 도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공동체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농촌 재생이 기존 농촌이 지닌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출품된 작품들이 기존 농촌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고양하기 위한 과정과 프로그램 대안을 보다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농촌계획대전의 대상지를 21년 선정된 농촌 협약 대상지구 중에서 선택함으로써, 일부 작품들은 협약 보고서를 통해 구축된 엄청난 현황 자료에 함몰되어 논리적인 계획에 집중한 나머지 아이디어의 도출이나 젊은이다운 도전정신을 반감시키는 결과물을 제시하게 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농촌의 문제에 귀 기울이고, 미래 세대다운 긍정적인 사고로 농촌의 장래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만으로 62점의 출품작들은 모두 소중하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품을 위해 쏟았던 열정의 시간과 노력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 대천에서 영(young)난다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의 수물민 이주지인 대천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현황 분석에 있어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물 전후 지역의 자원을 함께 분석하고 이를 동시에 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차별화된 대천리만의 농촌다움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젊은 세대가 찾을 수 있는 농촌마을의 조성을 위하여 MZ 세대의 특성을 분석하여 청년들이 시골에서의 힐링하는 삶 즉 '러스틱 라이프'를 동경함을 도출하였고, 이를 위해 1. 하루 떠나다, 2 한 달 머물다, 3. 일 년 자리 잡다, 4. 영영 동지 틀다의 4단계 전략을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대천으로의 하루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입한다거나, 한 달 머무는 동안의 생활을 위한 농촌학교의 개강, 정착을 위한 사랑방과 일자리 지원 등 아이디어를 실제적인 계획으로 현실화시킨 점들도 참신하다.

다만, 일부 추진 사업들이 비슷한 사례들을 그대로 도 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앞으로 주민들과청년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 아이디어가 추가된다면 더 좋은 계획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김상욱

심사위원장 · 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

### 청춘요람, 고성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의 농촌 재생을 계획한 '청춘요람, 고성' 작품은 대상지의 현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생활권을 구분하고 나름의 관광권역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계획안 도출에 있어 타켓 별 및 배둔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요 타겟에 대한 전략으로 각각 젊은 세대 유치와 활기찬 노년으로 구분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의 제시,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 및 주택지 개발, 청정과채 자급자족 및 농지임대, 그리고 주민들의 활기찬 노년을 유도하는 지혜로운 선생 팀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다만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필요에 의해 나열되어 있어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총괄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CLUB, 만경; 만경제재소로 모이소~!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일대를 대상으로 마을 중심의 만경제재소를 거점화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흠어져있는 만경의 자원들을 모아 시너지를 얻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67년 역사의 만경제재소를 중심으로 목공교육 및 문화의 장으로 삼겠다는 아이디어는 주민들에게는 지역의 역사화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 모임의 장소이자 관광객들에게는 목공 학교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만경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농촌 재생의 주 내용들이 목공 및 연계사업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급되고는 있지만,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주요 자원인 능제 저수지를 활용한 다양한 활용전략과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인하는 특화된 전략이 제시 된다면 보다 알찬 작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배든든한 배둔리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를 대상으로, 배든든한 농촌살이 4Re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 산업 및 관광에 대한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제시하고 있다.

언급되는 사업들은 당장이라도 도입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나치게 현실적인 대안들이 다수 있어 대학생들의 젊은 아이디어 도출이라는 기존 취지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도시에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주민들과의 융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더 좋은 계획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김상욱

심사위원장 · 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

### 만경창파(萬頃蒼波) : 만경에 흐르는 푸른 물결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을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능제저수지에 연꽃배와 수상 레저를 운영하여 농촌관광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인 '느루'를 조직하여 주민들이 함께 일하고 골고루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기존 지역민들을 위한 생활서비스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젊은 세대들을 받아들일만한 특화된 전략의 구체성이 결여된 점 등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동동(東動) 동면의 중심을 움직이다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장동리 일원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요 자원인 화순광업소 및 폐선로 등에 대한 차별화를 통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외부 방문객을 자연스럽게 유입시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구상하는 주요 사업들이 일반 농산어촌 사업에서 제시되는 365서비스를 위한 사업들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외부인들 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의 유입을 위한 전략들이 구체화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청춘창고: 젊음이 모여드는 마을, 창리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를 대상으로 마을의 정주여건 및 생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마을공원의 조성, 마을 곳간이라는 마을 브랜드 만들기 및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를 연계하는 방안 등은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 농촌 중심지 사업이나 기초 생활거점사업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다소 답답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아이디어는 부족한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라 판단된다.



##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올해 농촌계획대전 출품작은 농촌 재생이라는 큰 틀 속에서 '살고 싶은 젊은 농촌 만들기'라는 핵심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잘 녹여내었습니다. 이에 작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몇 가지 아이디어는 정책에 바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가용 자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가는 과정이 획일적이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음 대전에서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대천에서 영(young)난다

하루, 한 달, 일 년이라는 단계를 거쳐 삶을 정하도록 하자는 접근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특히 청년층 유입을 넘어 정착을 꾀해야 하는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사 펀드와 농업 승계는 최근 청년 농업인이 겪는 농지 및 초기 자금 확보 그리고 영농 기술 습득이라는 문제와 고령 농업인의 영농 관련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보려는 시도로 의미가 있습니다. 대천리의 날이나 팜파티 등도 수몰의 아픔을 안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소통 및 화합 차원에서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작목을 중심으로 농사를 꾸리도록 할 것인지라는 제안을 더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 청춘요람, 고성

'젊음'을 넓게 해석한 점이 참신하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청년층 유입에 집중하다가 기존 주민, 특히 고령층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였기에 실제 정책 수립에서도 중요한 접근입니다. 이를 '젊은 세대 유치'와 '활기찬 노년' 전략에서 잘 연결시킨 점도 눈여겨볼만합니다. 배둔리 전반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이나 농촌 주거 조사 인턴 역시 활용도가 많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을 어플이나 농촌 브랜드 등은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단계로 추진해도 좋을 듯합니다.

### CLUB, 만경; 만경제재소로 모이소-

제재소라는 회소한 자원을 중심으로 지역 재생을 꾀하는 발상이 매우 참신했습니다. 제재소라는 아이템 자체가 외부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기에 목공 학교나 목공 특화 마을을 조성하면 효과가 크리라 봅니다. 이와 연계하여 문화 예술 및 체험 공간을 함께 꾸린다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배우러 오이소'의 자격증 제도나 농업 교육 제도는 지역의 특성과 관련성이 적고, 유리온실 등의 아이디어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다듬었으면 합니다.

##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배든든한 배둔리

생활-산업-관광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공간적으로 잘 배치하고, 이를 4개년 계획이라는 형태로 배열한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배둔리와 인근에서 쌀을 주로 생산하기는 하더라도 쌀과 쌀 가공 제품을 주력으로 한 특화 산업이 어느 정도 차별성과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만경창파(萬頃蒼波) : 만경에 흐르는 푸른 물결

지역 자원을 토대로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중심의 협동조합에서 각종 자원을 관리·운영하는 방식은 지역 경제에 크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특히, 보다 안정적인 농외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 재생이나 젊은 층 유입 측면에서 매력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만금에 인접해 있는 등 지리적 여건이 유리하지만, 동시에 인구가 빠져나갈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차별성을 둔다면 보다 긴요한 제안이 될 것입니다.

### 동동(東動) 동면의 중심을 움직이다

지역 사양산업인 석탄 산업의 특이성을 살리면서 이를 지렛대 삼아 지역재생을 꾀하려는 시도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하여 촌캉스에 활용하거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이를 동동 열차를 이용해 공간적으로 연결해 주는 아이디어도 좋았습니다. 동동 약국과 동동 서클 역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긴요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이를 추진할 민간협업체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운영할지, 그리고 공유 동면을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도록 할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매우 유용한 청사진이 되리라 봅니다.

### 청춘창고: 젊음이 모여드는 마을, 창리

지역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주민 인터뷰 등까지 더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등과의 산학 협력이나 마을 공간, 미래 인재 지원 사업 등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반면 생태마을 조성이나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등은 실현 가능성을 더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남수

공주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한국농촌계획대전은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농촌 공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것이 실현된 농촌 마을의 미래상을 홍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제20회 한국농촌계획대전의 주제는 ‘농촌 재생, 살고 싶은 젊은 농촌 만들기’이었으며, 계획 수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농촌 협약으로 선정된 8개 지구 생활권 내 제시된 대상지 중에서 선택하였다.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한 이번 대전의 참가신청은 76팀(232명)이었는데 최종 작품 제출은 62팀(204명)으로 작년(39개 팀)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전공 또한 건축학, 조경학 뿐만 아니라 도시공학, 농업경제학과 등 다양하였다.

젊은 농촌 만들기라는 주제에 맞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생활권 분석에 집중한 팀도 있었고, 전략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팀도 있었으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디자인이나 설계도에 집중한 팀도 있었다. 사업비나 운영 관리 방안까지 제시한 팀도 있었지만, 학생 수준에 제시할 수 있는 한계점으로 인해 우수한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발표를 들으면서 답은 결국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느꼈다. 본인이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대전에서 영(young)난다

경북 청도 운문면 대천리를 대상으로 MZ 세대가 농촌에 느낄 수 있는 호감을 러스틱 라이프(시골향 라이프 스타일)로 잘 풀어냈다. 특히 본인들의 취향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루 떠나다’, ‘한 달 머물다’, ‘일 년 자리 잡다’, ‘영영 등지 틀다’의 네 가지 분류로 따라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 뛰어났다.

구체적으로 하루는 메타버스와 연계하는 방안과 리얼월드 맵을 활용한 가벼운 방문을 제안하였으며, 한 달은 청도 농촌학교와 같은 학습과 연계를 제안하였고, 일 년은 주말 텃밭이나 공유 주택과 같은 오도 이촌 개념의 주말체험으로, 영영은 일자리 지원과 농사 펀드, 농업 승계 등을 연결해 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또한 본인들이 조사하면서 불편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했을 교통을 개선하기 위한 공용 모빌리티, 정주 여건 개선 등도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였다.

### 청춘요람, 고성

경남 고성 회화면 배둔리를 대상으로 ‘젊음’과 ‘살고 싶은’이라는 분류로 계획하였다.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생활권을 분석하여 정주여건이 갖춰진 남부생활권과 자연관광 자원이 풍부한 북부생활권을 설정하였다. 다시 이를 친구와 개인인 주요 대상인 녹빛 힐링권과 가족이 주요 대상인 쫓빛 모험권으로 구분하였고 회화면을 상위 거점으로 하여 가족형 교육관광지라는 주제를 도출하고 청소년, 청년 복지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과정이 인상 깊었다. 대상 마을인 배둔리의 경우 방치된 공간과 시설을 찾았다. 젊은 배둔의 경우 청소년, 청년을 불러올 수 있는 방안과 노년층을 보호하고 멘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살기 좋은 배둔의 경우 생활, 경제, 공간별 문제점을 찾고 보완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농촌주거 인턴은 좋은 아이디어로 판단된다. 팀이 아닌 개인으로 준비하여 도출된 아이디어가 정제될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정남수

공주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 CLUB, 만경; 만경제재소로 모이소-

전북 김제 만경을 만경리를 대상으로 마을 내 주요 시설인 만경 제재소를 거점화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다양한 공간 적용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어둡고 시끄러우며 먼지가 많은 제재소를 '맹글러 오이소', '배우러 오이소', '즐겁게 오이소', '쉬러 오이소' 등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가능케하는 리노베이션 방안과 프로그램과 인력 등을 계획하고, 이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이 뛰어났다. 드론과 디지털 농업, 스마트 팜, 차박 캠핑장, 메디카 등은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나 처음 제시했던 만경제재소와 연관성이 부족해지며 계획의 집중력이 떨어진 점이 아쉬웠다.

### 배든든한 배둔리

경북 고성 회화면 배둔리를 대상으로 인구변화 분석, 산업 분석, 관광 인프라 분석을 실시하여 새로운 시작(Re-fresh), 뒤바뀐 배둔리(Re-verse), 오고 싶은 배둔리(Re-turn), 마을 활력 회복(Re-cover)로 농촌살이(4Re)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시작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다 바뀐 배둔리는 주민 복지 문화생활 개선으로 오고 싶은 배둔리는 새로운 산업 정착으로 마을 활력 회복은 농촌 활성화로 구체화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을 진행할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만경창파(萬頃蒼波) : 만경에 흐르는 푸른 물결

전북 김제 만경을 만경리를 대상으로 지역분석을 실시하고 한 번에 몰아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느루 지역 공동체 협동조합을 제안하였다. 폐가 건물 재건축과 촌캉스 펜션 등 느루 민박과 김제 특산물을 판매하는 느루 카페 등 관광사업과 능제 지수지에 다리 건설, 연꽃배 운영, 차박과 캠핑 등을 활용한 수상 레포츠를 제안하였다.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과 새만금 발전으로 유입되는 예상인구 등을 합산하여 잠재적 수요층을 예측하였고, 만경 폴리스, 천원 택시, 실버 헬스장, 문화센터, 의료지원 버스, 학교 연계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하였다. 다만 생활권과 제시된 내용들이 농촌다움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정남수

공주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 동동(東動) 동면의 중심을 움직이다

전남 화순 동면 장동리를 대상으로 정주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산업유산의 문화 관광산업화를 주민을 위한 움직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움직임, 지역성 보전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전략으로 풀어냈다. 구체적으로 정주환경의 문제점을 통일성 없는 담장과 좁은 마을 안길, 부족한 보건 인프라로 진단하고 돌담길 정비, 소방로 확보, 원력 화상 투약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폐가, 빈 창고, 휴경지 등 유휴자원에 치유농업, 농가 레스토랑, 농촌 민박, 촌캉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방치된 화순광업소 산업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동 열차, 동동 투어(탄광 기념존, 동방 마켓, 동동 축제) 등을 제시하였다. 커뮤니티 거점으로 마중 센터와 맘 편한 센터도 제시하였다. 거점시설의 주민 용객수와 방문객을 추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 관리 계획도 제시하였으나 지역성 보전을 관광으로 풀어낸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청춘창고: 젊음이 모여드는 마을, 창리

강원 평창 미탄면 창리를 대상으로 젊음이 모여드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계획을 수립 하였다. 지역의 시설 자원을 조사하고 중요도 만족도 분석과 SWOT 분석을 통해 젊은 사람이 모이기 위해 유휴시설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상을 담다(생활 인프라 개선), 자연을 품다(환경 개선), 기회를 잡다(지역 경제 활성화), 미래를 열다(주민 역량 강화)라는 전략을 도출하였다. '일상을 담다'는 건강검진, 운동처방, 모니터링의 보건과 탄소 중립 학교,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작은 영화관, 공유 오피스 등 문화를 제시하였다. '자연을 품다'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해 저영향 개발을 적용하고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길 정비 사업을 제시하였다. '기회를 잡다'는 마을 공간, 서울대 평창 캠퍼스와의 산학협력, 미탄면 청년협동조합 '와우 미탄'과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미래를 열다'는 6차 산업화, 귀농·귀촌 교육,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예산(안)과 로드맵도 인상적이었다.

## 정해준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교수

20들을 맞는 한국농촌계획대전은 그 역사만큼이나 미래세대 농촌 계획가의 산실이 되어왔다. 심사위원 본인이 제3회 한국농촌계획대전(당시는 농촌 어메니티 환경설계 공모전) 수상자 출신인 것이 부끄럽지만 작은 증명이라 하겠다. 학생들이 출품하는 작품의 수준은 공모전의 나이만큼이나 높아졌으며, 농촌의 생태, 문화, 역사자원을 발굴하여 농촌을 되살리고자 하는 전방위적 접근법은 더욱 깊어졌다. 건축, 도시, 조경,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젊은 농촌을 만들기에 높은 수준의 작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판넬 위의 그래픽의 화려함과 정연한 논리의 텍스트에 비해, 작품 중에 '학생다운' 재기 발랄함은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농촌, 청년의 마음으로 펼쳐보는 농촌을 기대했으나, 기성세대의 용역 보고서에서의 계획 방법과 콘텐츠가 마치 모범 답안처럼 재생 반복되는 작품들이 다수였다. 앞으로 젊은 농촌 만들기에 참가자 여러분의 과감한 도전을 기대해 본다.

### 대전에서 영(young)난다

'농촌 재생, 살고 싶은 젊은 농촌 만들기'라는 이번 공모전 주제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다. 농촌과의 마음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당일치기 여행에서부터, 한 달 살기, 거주에 이르기 까지, 청년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입을 위한 단계적 계획이 인상적이다. 기간별 다양한 전략 또한 탁월하다.

### 청춘요람, 고성

주어진 사이트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로 확장되는 계획이 매우 인상적인 작품이다. 학생들이 풀어나간 탁월한 장소 읽기는 기성세대 실무자들이 오히려 배울 만큼 훌륭하다. 그러나 이해 비해 작품이 제시한 대안은 오히려 프로페셔널함에 아쉬움을 준다.

### CLUB, 만경; 만경제재소로 모이소~!

출품작 중 가장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빛을 발했던 작품이다. 지역의 고유 자원인 제재소의 하드웨어적 공간 재생은 물론, 지역의 요구를 충족하고 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아이디어 또한 훌륭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고가 보였던 많은 아이디어는 오히려 작품의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었다.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한다.

### 배든든한 배둔리

프로들의 제안 같은 전문성이 돋보인 작품이다. 그러나 분석과 계획 내용이 작품명 대로 대상지 현장에 든든하게 발을 내린 작품인지 의문이 든다.

**정해준**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교수

**만경창파(萬頃蒼波) :  
만경에 흐르는  
푸른 물결**

지역의 현실과 문제, 가능성을 그 어떤 작품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본 작품이다. 분석에 따른 작품에서의 제안 또한 효과적이었다. 다만, 젊은 농촌 만들기라는 본 공모전의 주제에서 부합하였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동(東動)  
동면의 중심을  
움직이다**

탄광촌, 폐선로, 천혜의 경관 등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한 계획이다. 대상지를 비롯하여 상하위 계획까지 체계적인 분석과, 분석이 기반된 계획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제안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아이디어가 펼쳐졌으나, 과연 탄광촌, 폐선로, 천혜의 경관을 지닌 이 지역만을 위한 계획인가에 의구심을 준다.

**청춘창고: 젊음이  
모여드는 마을, 창리**

공간 디자인 보다, 계획에 더 큰 방점을 찍은 작품이다. 그만큼 차별성을 가진 작품이기도 하다. 다만 작품의 내용에 비해 판넬에서의 표현법이 다소 서투름이 아쉬운 작품이다.

## 홍석영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우리 농촌은 과소화 문제와 청년의 유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올해의 공모 주제인 “농촌 재생, 살고 싶은 젊은 농촌 만들기”의 취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선택한 대상지에 대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인 농촌 재생 아이디어를 제시한 좋은 작품들이었습니다. 21년 농촌 협약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구를 대상지로 하였습니다. 농어촌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인이 개인 또는 5인 이내의 팀으로 구성하여 62개의 작품을 제출한 풍성한 대전이었습니다.

미래 주제인 청년과 과소화라는 측면에서 ‘살고 싶은 젊은 농촌’이라는 관점을 부각시켜 평가하였습니다. 농촌과 농촌성 회복을 위한, 생각지도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쁨을 준 작품도 있었습니다. 대상지의 특성을 살려 개성이 있는 계획을 만들고, 농촌 주민과 지역 활성화, 청년 유입과 도농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가 혼재한 작품들이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하면서 함께 고민했던 경험은 참여자 모두에게 농촌을 좀 더 알게 된 소중한 추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대천에서 영(young)난다

경북 청도군 금천을 중심으로, 청년의 관점에서 살고 싶은 농촌 유입책을 제시한 공모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또한 공간 거점별로 적재적소의 사업 구상이 돋보였습니다. 관심을 갖게 하고 체험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거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유입책을 제시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즉, 제페토, 메타버스 등 플랫폼을 활용한 AR 연계 홍보, 청도 농촌학교를 통한 체험, 빈집 재생을 통한 공유 주택, 유휴공간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대천 사랑방, 치유공간의 조성 등은 설레게 하는 MZ 세대 유입책이었습니다.

### 청춘요람, 고성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일원을 대상을 청년의 연령대별 농촌 회복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즉,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학교 공간 재배치, 농촌 유학 활성화, 돌봄을 위한 마을학교를 제시하였고, 귀농 귀촌으로 유입하는 20~40대를 대상으로는 농촌 유휴공간 리모델링 공유 플랫폼 및 키트 판매, 농업 정보 공유 플랫폼, 임대 농지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스쿨존 교통지도나 급식도우미 등 지혜로운 선생님 활동을 통한 학생들과의 교류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배둔리에 국한한 계획이 아니라 생활권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공간계획이 제시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CLUB, 만경; 만경제재소로 모이소-

전북 김제의 60년 된 만경제재소를 중심 거점화하여 목공교육, 체험과 마을 행사 중심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 빈집을 활용한 주민문화복지, 예술, 생활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재소를 중심 거점화하는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독창적인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청년의 유입에 초점을 맞춘 공간계획과 사업 아이디어가 추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석영**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배든든한 배둔리**

경남 고성군 북부 회화면 배둔리 주민을 위한 복화문화공간 신설, 배둔천 산책로 정비 등 문화·여가 서비스 기반 확충과 배둔막걸리 및 특산자원을 활용하여 농산업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배둔리의 관광자원 기반의 러스틱라이프 체험을 제안하였는데, 일반적인 구상 수준이고 청년의 유입을 위한 아이디어가 드러나지 않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만경창파(萬頃蒼波) :  
만경에 흐르는  
푸른 물결**

전북 김제 만경읍 남리 일대를 대상으로 방문객 및 주민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나 그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독창적인 사업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해 보였습니다. 느루 통합 플랫폼이나 생활 서비스에 대한 제안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좀 더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청년 유입책도 미비했습니다.

**동동(東動)  
동면의 중심을  
움직이다**

전남 화순군 동부권을 중심으로 주민을 위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성 보전을 위한 방향성에 맞추어 농촌공간계획 제시를 한 점이 특징입니다. 정주환경의 개선을 통한 지역민 삶의 질 제고, 농촌자원의 유희시간을 활용한 농촌 경제 활성화, 유희 산업 시설을 활용한 지역재생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청년의 유입에 초점을 맞춘 모델의 제시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청춘창고: 젊음이  
모여드는 마을, 창리**

강원 평창군 남부의 미탄면 창리 일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의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창리 미래 인재 지원 사업을 통한 청년 유입을 제안하였으나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체성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마을 자원을 좀 더 독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제시가 아쉬웠습니다.

# 5.

## 수상작품

---

**대상** | **대천에서 영(young)난다**  
김주연, 김수민, 정신영, 백진규, 안주언

**우수상** | **청춘요람, 고성**  
조수림

**우수상** | **CLUB, 만경; 만경제재소로 모이소-!**  
임가빈, 김정연, 성민지, 유지연

**장려상** | **배든든한 배둔리**  
최우진, 김가을

**장려상** | **만경창파(萬頃蒼波) : 만경에 흐르는 푸른 물결**  
오유정, 윤성근, 문명준, 이형연, 김하영

**장려상** | **동동(東動)\_동면의 중심을 움직이다**  
이재환, 김성주, 양예지, 전서희, 김채연

**장려상** | **청춘창고 : 젊음이 모여드는 마을, 창리**  
황윤미, 방민지, 김유진, 이세연, 강민아

## 입선 |

**운문대천** 이정아, 김진완, 박성욱, 정세울, 최화린

**고성, 방가** 임정민, 강성규, 문정혜

**운수대천** 최하영, 최보운, 김소연, 이현지

**청연 (淸蓮)**

박준용, 라영엽, 김은주, 정지윤, 김태민

**대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도현빈, 최승진, 김주혜, 변민제

**모두에게 열린 마을, 죽산 [러스틱 오픈 빌리지]**

이서영, 허다현, 안지수

**근두운곡, 운곡면** 유가현, 안준석

**댐마을 천천천**

김여진, 이휘주, 이호진, 이성민, 장대동

**정오** 이동희, 이재운, 전영권, 정택범, 박정희

**우후죽산, 샘솟는 마을, 샘솟는 마음**

김수현, 안세종, 안태경, 송유림, 홍유진

**청양(靑陽)한 삶, 청량한 운곡(靚曲)**

이정현, 김현지, 박성현, 박유원, 이용욱

**만경 해방일지** 허란, 전유진, 서화영

**일농일생(一農一生)** 최원규, 신민섭, 이다나

**LIGHT, 빛으로 잇는 죽산**

심우성, 김태웅, 오승민, 이지수, 박원진

**구본신참(舊本新參): 농촌의 여유로움에 젊음의 활력을 담다** 김연주, 김민영

**Come And Commend**

최현식, 신주연, 이건희, 이정원

**이도향촌: 끊어진 마을에 선을 잇다**

류세미, 최경현, 정승준, 최현태

**도랑도랑** 민동주

**POP-UP '창'** 김민정, 김소윤, 김형준, 윤규빈

**고-잇다** 이지은, 김은별, 박지숙, 윤수, 이한울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 짓다** 김예찬, 김소연

**구비구비 구룡리에는요** 허석정, 이문주, 남영현

**대천에 살어리랏다** 권예린, 김영비

**'구룡구경' 구룡리에서 만나는 아홉가지 이야기 변화의 시작 (나, 너 그리고 우리)**

백혜빈, 도종원, 조대윤, 신희정, 김진희

**해죽해죽** 홍영현, 안유진, 김주연, 이나현

**둔둔함이 가득한 배둔리** 이지수, 이동현

**죽산 모꼬지 텃밭마을** 여해린, 박소현

**씨유화순 (See you HwaSOON)**

이세진, 김지은, 임준혁, 길은비, 소희진

**관계인구** 송주영, 여동혁, 이재우

**같이의 가치** 양승민, 주진웅, 서정민, 최지영

**운곡을 부른다**

이태균, 이지선, 한재욱, 이규민, 이가영

**히죽히죽** 이용인, 김슬기, 박상아, 박채영, 이승주

## 대상 대천에서 영(young)난다

경북대학교 | 김주연, 김수민, 정신영, 백진규, 안주언



### 작품설명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일원은 과거로부터 운문댐 축조로 인한 수몰민들의 고향을 잃은 아픔이 존재하며, 젊은 연령대의 인구 유입이 많지 않아 지방 소멸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이 지속해서 대두됐다.

‘대천에서 영(young)난다’는 고령화를 해결하고 나아가 젊은 농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청년들은 도시 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삭막한 빌딩을 벗어나 자연을 찾아 나선다.

그렇기에 ‘대천에서 영(young)난다’는 2022년 트렌드 ‘러스틱 라이프’에 맞춰 4단계에 따라 전략을 구분하고, 청년들이 대천리에 방문하여 하루, 한 달 시간을 보내다 최종적으로 대천리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을 세워 앞서 대두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천리를 지속 가능한 영원한 동네로 만들고자 한다. ‘떠나다’, ‘머물다’, ‘자리 잡다’, ‘동지 틀다’ 4단계에서 비롯한 ‘하루 떠나다’, ‘한 달 머물다’, ‘일 년 자리잡다’, ‘영영 동지 틀다’를 통해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 정주여건 개선,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정착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제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천에서 영(young)난다’는 살고 싶은 농촌을 넘어 트렌드를 주도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농촌을 지향한다.

# 대전에서 영(young)난다

2022년 1차 대전에서 영(young)난다 대청읍영농계획 및 10년 농촌 발전 계획 수립사업. 대전에서 영(young)난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 대청읍정체

대전에서 영(young)난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 주요 영농

대전에서 영(young)난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 대전에서 영(young)난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 STEP1. 하루 아침

대전에서 영(young)난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 STEP2. 한을 이룬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 STEP3. 일년 자리잡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 STEP4. 영의 들지들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대전에서 영(young)난다.

## 우수상 청춘요람, 고성

경기대학교 | 조수림



### 작품설명

‘푸른색이 쪽빛에서 나왔으나 더 푸르다’는 청춘어람에서 착안한 제목으로, 연령과 세대를 막론한 청춘들의 요람이자 바다보다 푸르른, 청춘을 보내는 주민들의 마을이라는 의미로 ‘청춘요람, 고성’으로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공모주제인 ‘살고 싶은, 젊은 농촌’ 중 첫 번째, ‘젊은 농촌’은 ‘젊은’ 인구의 유입(청소년, 청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 고령 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일자리 환경을 재편성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젊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살고 싶은’ 농촌은 관광업보다는 회화면 자체 산업과 생활환경 개선에 계획의 초점을 맞추고 회화면 배둔리에서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닌 각 도시, 공간들의 역할을 배정하여 회화면이 속한 북부 생활권, 고성군, 더 나아가 수도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역 간 짜임새 있는 계획을 목표로했습니다. 또한 기존 농촌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3가지(생활, 경제, 공간)에서의 기존 정책, 공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이 가지고 있는 hw, sw적 강점들을 최대한 살려 ‘스마트한 도시’보단 ‘지혜로운 마을’의 가치를 강조하고 농촌의 부족한 인프라 수요에 대한 공급의 효율을 위하여 기존 농촌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회화면 외 중위, 하위 거점들과의 인프라 공유를 방향으로 잡고 계획을 세분화했습니다.

이 계획안을 통해 고령화되고 노후된 농촌이 연령대 상관없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꿈꿀 수 있고 어디서든 꿈을 피워낼 수 있는 남녀노소 청춘의 보금자리로써 재탄생 하길 바라봅니다.

## 청춘요람, 고성

청춘요람, 고성  
청춘요람, 고성  
청춘요람, 고성

**청고실은 젊은 농촌**  
청춘요람, 고성

종류	Wholesale	Optimum	Farmer
농산물 판매	농산물 판매	농산물 판매	농산물 판매
농산물 판매	농산물 판매	농산물 판매	농산물 판매
농산물 판매	농산물 판매	농산물 판매	농산물 판매

**고성, 북부생활권**

**회화면 배두리 부지**

**1. 예외으로, 청춘요람에 설치**

**청춘요람 부지**

**2. 고성, 청춘요람**

**3. 고성, 청춘요람**

**4. 고성, 청춘요람**

**5. 고성, 청춘요람**

**6. 고성, 청춘요람**

**7. 고성, 청춘요람**

**8. 고성, 청춘요람**

**9. 고성, 청춘요람**

**10. 고성, 청춘요람**

**11. 고성, 청춘요람**

**12. 고성, 청춘요람**

**13. 고성, 청춘요람**

**14. 고성, 청춘요람**

**15. 고성, 청춘요람**

**16. 고성, 청춘요람**

**17. 고성, 청춘요람**

**18. 고성, 청춘요람**

**19. 고성, 청춘요람**

**20. 고성, 청춘요람**

**21. 고성, 청춘요람**

**22. 고성, 청춘요람**

**23. 고성, 청춘요람**

**24. 고성, 청춘요람**

**25. 고성, 청춘요람**

**26. 고성, 청춘요람**

**27. 고성, 청춘요람**

**28. 고성, 청춘요람**

**29. 고성, 청춘요람**

**30. 고성, 청춘요람**

**31. 고성, 청춘요람**

**32. 고성, 청춘요람**

**33. 고성, 청춘요람**

**34. 고성, 청춘요람**

**35. 고성, 청춘요람**

**36. 고성, 청춘요람**

**37. 고성, 청춘요람**

**38. 고성, 청춘요람**

**39. 고성, 청춘요람**

**40. 고성, 청춘요람**

**41. 고성, 청춘요람**

**42. 고성, 청춘요람**

**43. 고성, 청춘요람**

**44. 고성, 청춘요람**

**45. 고성, 청춘요람**

**46. 고성, 청춘요람**

**47. 고성, 청춘요람**

**48. 고성, 청춘요람**

**49. 고성, 청춘요람**

**50. 고성, 청춘요람**

**51. 고성, 청춘요람**

**52. 고성, 청춘요람**

**53. 고성, 청춘요람**

**54. 고성, 청춘요람**

**55. 고성, 청춘요람**

**56. 고성, 청춘요람**

**57. 고성, 청춘요람**

**58. 고성, 청춘요람**

**59. 고성, 청춘요람**

**60. 고성, 청춘요람**

**61. 고성, 청춘요람**

**62. 고성, 청춘요람**

**63. 고성, 청춘요람**

**64. 고성, 청춘요람**

**65. 고성, 청춘요람**

**66. 고성, 청춘요람**

**67. 고성, 청춘요람**

**68. 고성, 청춘요람**

**69. 고성, 청춘요람**

**70. 고성, 청춘요람**

**71. 고성, 청춘요람**

**72. 고성, 청춘요람**

**73. 고성, 청춘요람**

**74. 고성, 청춘요람**

**75. 고성, 청춘요람**

**76. 고성, 청춘요람**

**77. 고성, 청춘요람**

**78. 고성, 청춘요람**

**79. 고성, 청춘요람**

**80. 고성, 청춘요람**

**81. 고성, 청춘요람**

**82. 고성, 청춘요람**

**83. 고성, 청춘요람**

**84. 고성, 청춘요람**

**85. 고성, 청춘요람**

**86. 고성, 청춘요람**

**87. 고성, 청춘요람**

**88. 고성, 청춘요람**

**89. 고성, 청춘요람**

**90. 고성, 청춘요람**

**91. 고성, 청춘요람**

**92. 고성, 청춘요람**

**93. 고성, 청춘요람**

**94. 고성, 청춘요람**

**95. 고성, 청춘요람**

**96. 고성, 청춘요람**

**97. 고성, 청춘요람**

**98. 고성, 청춘요람**

**99. 고성, 청춘요람**

**100. 고성, 청춘요람**

## 우수상 CLUB, 만경; 만경제재소로 모이소-

경기대학교 | 임가빈, 김정연, 성민지, 유지연



###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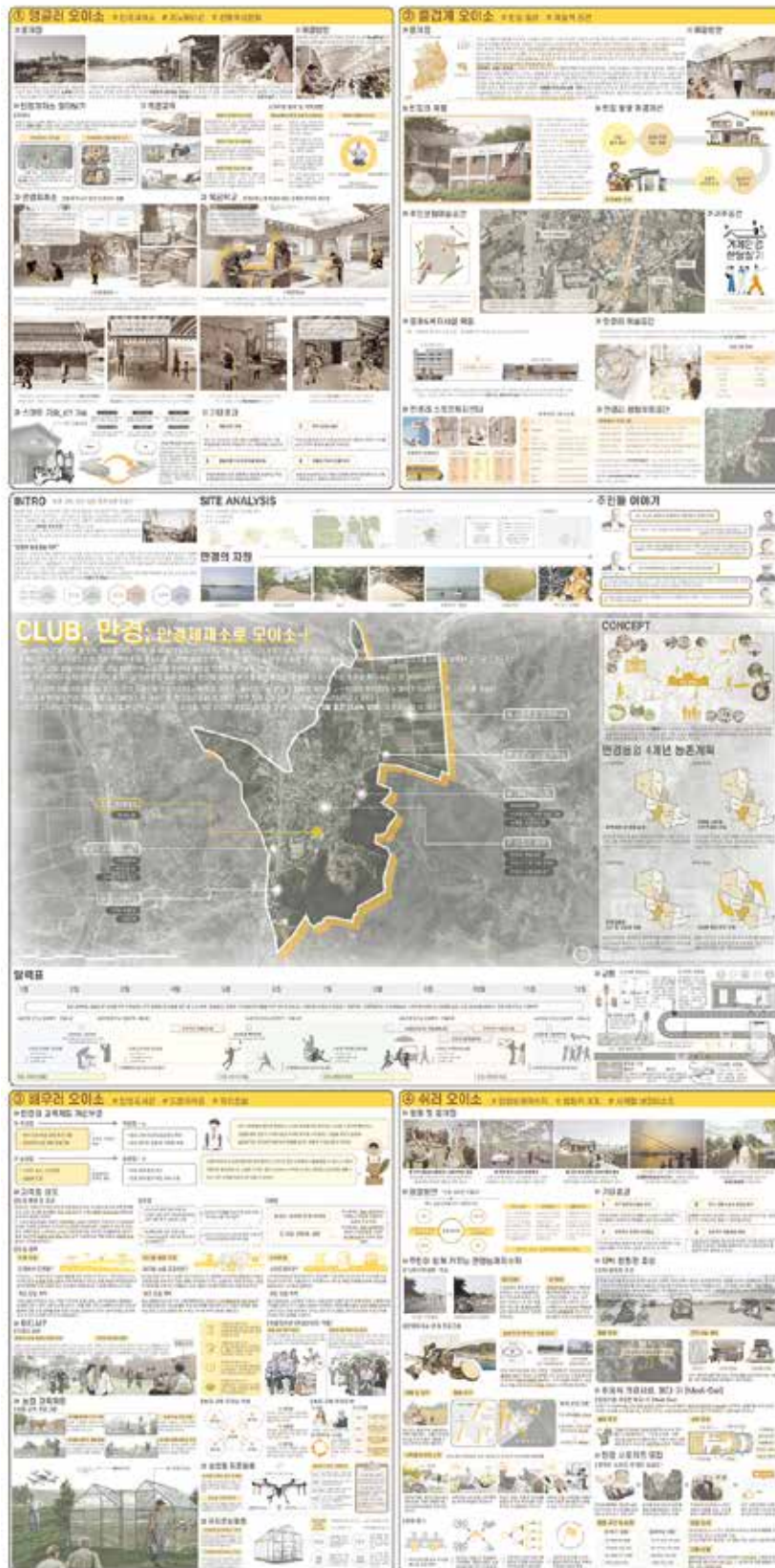
광활한 들판, 능제 저수지 등 아름다운 자원을 두루 갖춘 만경은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기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거주 중인 마을 주민들이 교류할 공간마저 부족하다. 이러한 가운데, 약 60여 년째 만경리에 우뚝 자리해 온 '만경 제재소'는 목공 활동뿐만 아니라 때때로 마을 행사의 개최 장소 역할로서 화합의 중심지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만경 제재소를 거점화하여 사람을 모으고, 흩어져 있는 만경의 자원들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엮어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농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만경리에서의 농촌 중심지를 만경의 자랑인 만경 제재소로 설정한 후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교류 환경을 만들고, 발전된 도로·교통 시설을 통해 장소 간의 이동에 편리함을 더한다.

먼저 만경 제재소를 목공 문화로 화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하게끔 하고, 곳곳에 분포해 있는 빈집들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며 마을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체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만경리 생활 체험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농촌 지역으로서 만경리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스마트·디지털 농업 전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기존의 만경리 자원을 활용하여 부족했던 휴식·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낮았던 의료시설 접근성 문제와 지역 인지도를 개선한다.

기존의 고리타분한 농촌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아름다운 능제를 가진 만경에 새로운 청춘이 찾아 모일 수 있는 [물 좋은 CLUB, 만경]의 이미지를 새김으로써 주민이 함께 가꾸고, 모두가 건강하며 활기를 띠는 만경리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경기대학교 | 임가빈, 김정연, 성민지, 유지연

## 장려상 배든든한 배둔리

계명대학교 | 최우진, 김가을



### 작품설명

배둔리는 다른 마을에 비해 연령층의 분포가 균일하며 다양한 서비스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배둔리의 다양한 인프라의 틀은 유지하면서 각 연령층이 필요로 하는 생활 편의와 교육 및 복지과 같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주변 마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한다. 고성군 회화면은 농촌 발전 계획에서 설정한 5대 권역 중 북부 생활권에 해당하는 생활권이다. 회화면 중에서는 배둔리가 가장 인구가 많고 기반 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고, 배둔리 내의 농가는 대부분 쌀농사를 진행하는 1차 산업이 진행 중이다. 당항포 관광지의 배후도시로 쌀을 이용한 막걸리 양조장과 가공식품 공장이라는 새로운 마을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능성 쌀 확대를 통한 친환경 브랜드 및 가공식품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을 산업을 활용한 관광을 통해 배둔리의 마을 생활 여건과 마을 가치 상승을 통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생활 편의와 주거 환경 및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농촌 귀농, 귀촌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계획했다. 마을 산업은 4차 산업보다 농촌 융복합산업인 6차에 관심을 두어 농촌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자원을 바탕으로 2, 3차 산업을 복합적으로 연계 및 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 배드룬한 배둔리

주거 지역  
농업 지역  
공업 지역

SCALE 1:500

### 대성지 분석

1. 인구 현황

2. 생활권

3. 생활권 변화

4. 대성지 입지 계획

5. SWOT 분석

6. 주민참여형 생활권발전 방안

7. 주민참여형 생활권발전 방안

8. 주민참여형 생활권발전 방안

9. 주민참여형 생활권발전 방안

10. 주민참여형 생활권발전 방안

### 생활 배치도

### 산업 배치도

### 관광 배치도

### 튼튼한 생활 (리빙)의 실현

1. 리빙의 리빙

2. 리빙의 리빙

3. 리빙의 리빙

4. 리빙의 리빙

5. 리빙의 리빙

6. 리빙의 리빙

7. 리빙의 리빙

8. 리빙의 리빙

9. 리빙의 리빙

10. 리빙의 리빙

### 튼튼한 산업 (리빙)의 실현

1. 리빙의 리빙

2. 리빙의 리빙

3. 리빙의 리빙

4. 리빙의 리빙

5. 리빙의 리빙

6. 리빙의 리빙

7. 리빙의 리빙

8. 리빙의 리빙

9. 리빙의 리빙

10. 리빙의 리빙

### 튼튼한 관광 (리빙)의 실현

1. 리빙의 리빙

2. 리빙의 리빙

3. 리빙의 리빙

4. 리빙의 리빙

5. 리빙의 리빙

6. 리빙의 리빙

7. 리빙의 리빙

8. 리빙의 리빙

9. 리빙의 리빙

10. 리빙의 리빙

### 지역공동체 운영 계획

1. 리빙의 리빙

2. 리빙의 리빙

3. 리빙의 리빙

4. 리빙의 리빙

5. 리빙의 리빙

6. 리빙의 리빙

7. 리빙의 리빙

8. 리빙의 리빙

9. 리빙의 리빙

10. 리빙의 리빙

### 농촌발전계획(농업)

1. 리빙의 리빙

2. 리빙의 리빙

3. 리빙의 리빙

4. 리빙의 리빙

5. 리빙의 리빙

6. 리빙의 리빙

7. 리빙의 리빙

8. 리빙의 리빙

9. 리빙의 리빙

10. 리빙의 리빙

### 농촌발전계획(관광)

1. 리빙의 리빙

2. 리빙의 리빙

3. 리빙의 리빙

4. 리빙의 리빙

5. 리빙의 리빙

6. 리빙의 리빙

7. 리빙의 리빙

8. 리빙의 리빙

9. 리빙의 리빙

10. 리빙의 리빙

## 장려상 만경창파(萬頃蒼波) : 만경에 흐르는 푸른 물결

충북대학교 | 오유정, 윤성근, 문명준 / 송실대학교 | 이형연, 김하영



### 작품설명

'만경에 흐르는 푸른 물결, 만경창파'라는 슬로건으로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평야를 가진 만경읍 남리를 젊음의 물결이 넘쳐흐르는 도시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남리의 보물 같은 자원을 개발하여 트렌드에 적합한 관광지로 탈바꿈 시키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젊음의 물결 '파란'을 일으키겠습니다.


'만경&능제에 파란을 일으키다'에서는 남리가 보유한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카페, 펜션, 수상레포츠 등의 관광 인프라를 조성합니다. 또한 남리의 지역 브랜드를 창출하여 특산물이 적극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지역 발전의 주체자이면서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체계를 구축합니다. '주민을 향한 물결'에서는 주민들이 안정적인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조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 구성원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인구에 특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하여 농촌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주변을 향한 물결'에서는 만경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중위, 하위 거점 지역에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배후 마을까지 이어지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농촌 거주민들에게는 살고 싶은, 관광객들에게는 찾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작품을 기획했습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부족한 인프라를 개선하여 고령의 주민들이 건강을 돌보고, 쉴 수 있는 공간은 물론이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장벽을 없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장려상 | 만경창파(萬頃蒼波) : 만경에 흐르는 푸른 물결

# 만경창파 (萬頃蒼波)

## : 만경에 흐르는 푸른 물결



### 현재분석

**현황**

**문제점**

**기대효과**

**SWOT 분석**

**지역특성**

**지역특성**

**지역특성**

**지역특성**

### 만경에 파란을 일으키다

**농업·농촌의 활성화**

**농업·농촌의 활성화**

**농업·농촌의 활성화**

**농업·농촌의 활성화**

### 주민은 차한 물결

**주민은 차한 물결**

**주민은 차한 물결**

**주민은 차한 물결**

### 푸리에 파란을 일으키다

**푸리에 파란을 일으키다**

**푸리에 파란을 일으키다**

**푸리에 파란을 일으키다**

### 주민은 차한 물결

**주민은 차한 물결**

**주민은 차한 물결**

**주민은 차한 물결**

### 기적의 물결

**기적의 물결**

**기적의 물결**

**기적의 물결**

### 기적의 물결

**기적의 물결**

**기적의 물결**

**기적의 물결**

## 장려상 동동(東動)\_동면의 중심을 움직이다

전남대학교 | 이재환, 김성주, 양예지, 전서희, 김채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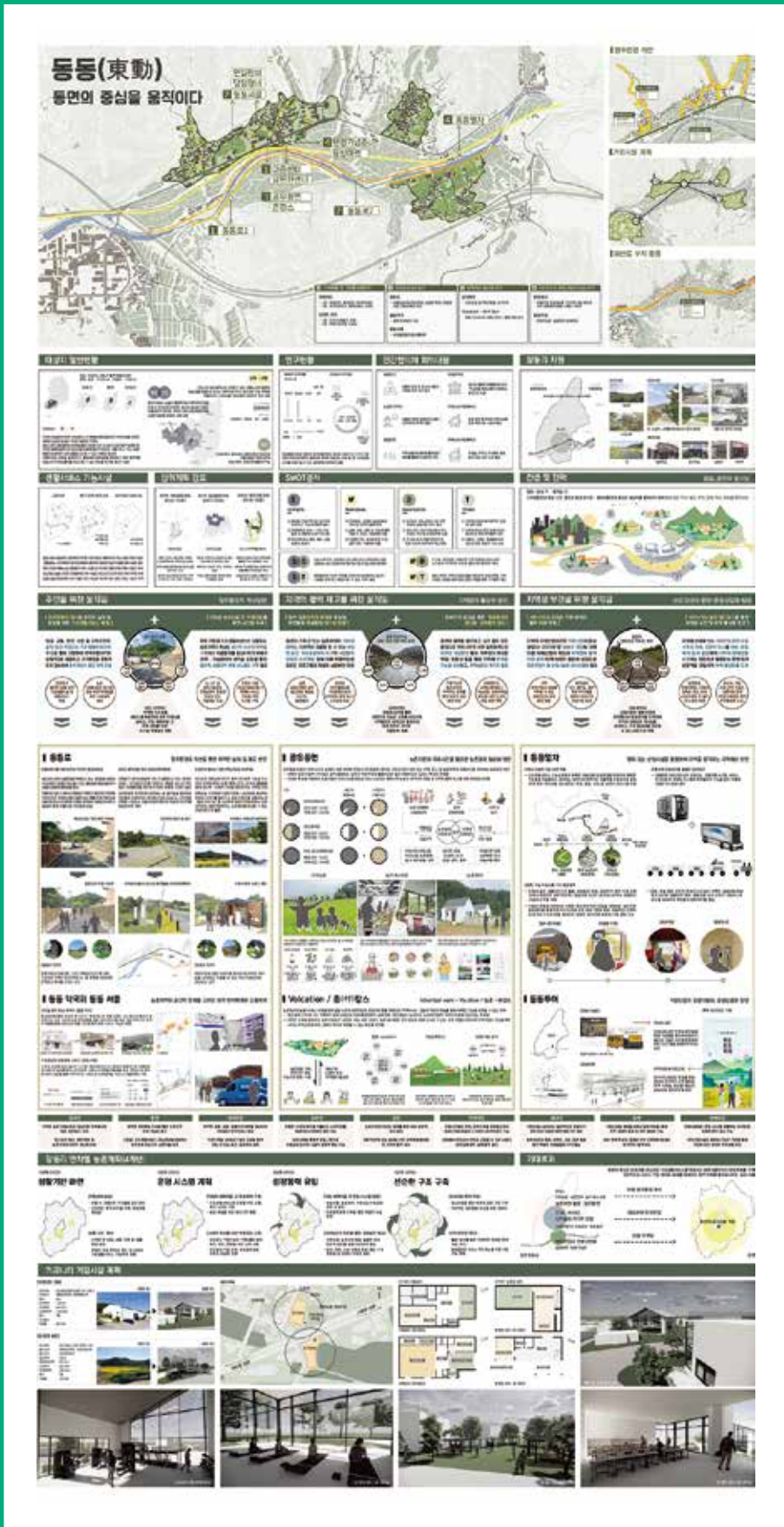
### 작품설명

전남 화순군 동면 장동리는 화순읍과 대도시권인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접근성 측면에서 양호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정주환경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인구 유출에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의 주요 산업인 석탄산업이 중단되는 등 지역 전반에 걸쳐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지역이다.

다각적 측면에서 지역을 진단한 결과 석탄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고 의료, 교통, 안전, 문화, 경제 등의 분야에서 대상지가 직면해있는 위기의 극복과 지역 전반의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계획에서는 지역이 보유한 여러 자원들의 다원적 가치 향상에 집중하고 전략적으로 정주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의 정체성 보존의 3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안전한 보행환경과 인문 산책길 조성', '소방도로 확보', '원격 화상 투약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통해 주민의 정주 만족도 향상과 기초 생활 서비스의 확충을 도모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농촌자원의 유희시간을 활용한 공유 경제 비즈니스 모델로써 '공유 동면'을 제안하고 외부 방문객의 유입을 증진시킬 수 있는 'Volcation', '촌캉스'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또한, 폐쇄 예정인 지역 석탄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석탄산업의 문화·관광산업화 방안으로 '동동 열차'와 '동동 투어'를 제안하고 다양한 역사·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지역성의 보존과 지역 산업의 재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정려성 | 동동(東動) \_ 동면의 중심을 움직인다



## 장려상 청춘창고 : 젊음이 모여드는 마을, 창리

강원대학교 | 황윤미, 방민지, 김유진, 이세연, 강민아



### 작품설명

해당 작품은 <일상을 담다>, <자연을 품다>, <기회를 잡다>, <미래를 열다>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을 담다>는 대중교통, 의료 시설, 교육환경, 문화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설문 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민의 소망 성취 및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한다.

<자연을 품다>는 시니어 파크, 생태 마을, 창리 길을 조성하여 진정한 자연 친화적인 마을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주민들이 사랑하는 마을의 자연경관 극대화, 관광객 유인을 목표로 한다.

<기회를 잡다>는 농산물 브랜드 '마을 공간'을 통해 창리의 맛과 멋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와 도내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농촌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지역 홍보와 외부 지역민을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한다.

<미래를 열다>는 주택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리의 청년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주민 대상 평생교육 및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복지를 실현함과 동시에 마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마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농업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농사 노하우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신규 농업인의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네 가지를 통해 작품명인 '청춘 창고'처럼 기존 주민과 청년 모두가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창리가 청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한다.





정면상 | 정원친고 : 젊음이 모여드는 마을, 청년

# 입선 657운문대천

경북대학교 | 이정아, 김진완, 박성욱, 정세울, 최화린

대천리는 운문댐 생성으로 이주하게 된 수몰민들의 이주 단지로 당시 수몰된 657가구의 숫자를 새롭게 해석하여 '657운문대천'이라는 컨셉을 선정했다.

'657'에 '6: 아름다웠던 운문골, 5: 현재 대천리의 모습, 7: 고향을 추억하고 활력이 더해진 새로운 대천리'라는 의미를 담아 수몰민의 가슴에 묻힌 雲門이 韻文으로써 위로될 수 있도록, 657로 풀어나가는 답시를 완성하고자 한다.

'젊은 농촌'의 첫걸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이다. 실향의 아픔이 있는 대천리 이주민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천리를 위로-공감·이해-소통-생기·활력·희망의 과정으로 '일곱 가지의 색을 지닌 젊은 농촌'으로 만들고자 했다.

위로는 폐창고와 그 일대를 '대천657'로 재생하는 과정으로, 위로의 광장에는 상징물인 선바위를 배치하고, 폐창고는 주민과 귀농인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교육 공간이 된다.

공감·이해는 마을 내부 풍경을 만드는 과정으로 곡천대를 재구현하여 휴식과 함께 마을 경관을 더하고,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골목 정원 만들기와 담장 허물기로 마음을 나눈다.

소통은 대천 공용버스터미널을 소통의 광장으로 만들어 카페 및 융복합 문화시설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공용 모빌리티 '타스'를 배치해 젊은 사람들의 차 없는 여행을 유도한다.

생기·활력·희망은 빈 집을 허물어 귀농인의 실습공간을 만들고, 넓은 농경지는 감 노지스마트팜을 운영하여 로컬 브랜드화 한다. 'revive657대천'이라는 슬로건과 디자인을 이용하여 마을 상품 제작과 주민 참여가 이루어진다.



## 입선 고성, 방가

삼육대학교 | 임정민, 강성규, 문정혜

고성군 화하면 배둔리는 고른 인구분포와, 많은 젊은 층 인구, 발달된 생활 인프라 등 '청년 농촌'으로 자리 잡기에 많은 이점이 있다고 분석하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곳에 기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홍보를 통해 청년들을 모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였다.

젊은 층인 MZ 세대들은 주로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추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즐겨 이용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MZ 세대 겨냥 SNS 활용 자체 개발형 지역 가꾸기"라는 컨셉을 잡았다.

SNS에서 관련된 내용물을 묶어주며 사용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의 내용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시태그(#)'의 개념을 빌려 #고성으로, #고성에서, #고성의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고성으로'는 '고성으로 가자'로 축제 등 관광의 프로그램들을 다루며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는 의도로 계획했다. '#고성에서'는 '고성에서 배우자'로 농촌의 부족한 교육, 귀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루며 농촌에서 진행되는 특색 있는 교육을 알리기 위해 계획했다. '#고성의'는 '고성의 생활'로 거주민들이 전보다 편리한 삶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루며 농촌도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길 바라며 계획했다.

이렇듯 지역에서 세 가지 태그를 활성화 시켜 고성이 가진 잠재력을 홍보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하고, SNS 내부에서 계속해서 상호작용되어 자체적인 홍보, 교육, 생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고성을 '살기 좋은 젊은 농촌'이라 인식하고 최종적으로는 고성에 정착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선순환을 그리고자 하였다.



# 입선 운수대천

계명대학교 | 최하영, 최보윤, 김소연, 이현지

〈운수대천〉의 대상지인 대천리 일대는 청도군 운문면에 위치해있습니다. 청도군 내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해있는 대천리의 주민과 인터뷰에서 젊은 인구가 거의 없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마을이 깨끗해도 활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대천리를 만들어 대천리에 활기를 불어넣을 젊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대천리에서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성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관광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젊은 인구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청도군 자체에서 대천리 일대를 농촌체험거점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촌체험활동을 이어가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때, 기존 주민들이 유입인구에 대한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청도군 자체에서 유입인구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교육,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대천리에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교육, 의료 인프라를 도입하여 읍내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채우기 위해 마을 정원,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마을이 되기 위한 마을 미화 프로그램 또한 계획했습니다. 대천리 일대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은 대천리가 되길 바라며 계획했습니다.



## 입선 청연 (淸蓮)

계명대학교 | 박준용, 라영엽, 김은주, 정지윤, 김태민

청연 : 청도를 연결하다

[대상지] 경상북도 청도군 대천리 일원  
대상지 주변에는 운문댐을 포함한 많은 관광자원이 있다. 운문댐 일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농촌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대부분 논과 밭, 과수원에서 농사를 짓는 고령 인구가 대부분이다.

[컨셉] 웰니스 농촌 : 웰니스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이다. 우리는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웰니스 관광으로 활용하여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며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적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농업과의 연결

1. 현재 대상지 농작물의 현황은 통일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상지 내 크게 3구역을 나누고 청도의 특산물을 재배한다. 2. 관광객들은 농산물 수확을 체험해 보며 직접 수확한 특산물로 요리를 해 볼 수 있고,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

[프로그램] 청도와외의 연결

1. 힐링 스테이 : 마을에 민박을 통해 농촌의 자연을 느끼며 살아볼 수 있다.  
2. 산책로 조성 : 대상지 주변의 관광 자원들을 활용하여 산책로 코스를 만든다.

[프로그램] 삶과 연결

1. 공공 주택 : 귀농·귀촌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공동 임대 주택을 제공하여 집값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청년공동체를 만들어 준다. 2. 임대 농업 :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농지를 임대 받아서 농사한다. 초기에 땅에 대한 매물과 자본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3. 지역브랜드와의 연결 -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수확물을 지역 브랜드와 연계하여 상품화한다. 지역 브랜드를 통해 상품 홍보가 가능하며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 입선 **대전리** 길도 한걸음부터

대구가톨릭대학교 | 도현빈, 최승진, 김주혜, 변민제

물과 산, 살기 좋은 마을 대전리.

도시의 급수난과 가뭄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된 운문댐으로 7개 마을의 수몰... 북적했던 마을의 분리로 실향민 발생, 그들이 모여 형성된 현재 대전리 마을.

인구 감소와 지역 자원관리·활용이 원활하지 못해 성장잠재력 저하, 고령화 진행이 되며 젊음을 잃어가는 대전리 마을.

아름다운 자연 활용, 서로 간의 소통 단절, 왕래가 끊긴 상태. 과거 주민들이 걸어온 걸음을 추억하고 앞으로 나아갈 걸음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활기찬 마을과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대전리 마을을 구현하고자 함.



## 입선 모두에게 열린 마을, 죽산 [러스틱 오픈 빌리지]

덕성여자대학교 | 이서영, 허다현, 안지수

모두에게 열려있는 마을, 러스틱 오픈 빌리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은 마을 내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공간 부족으로 인해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마을 기업이자 복합문화 공간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공간, '러스틱 오픈 빌리지'를 제안한다. 러스틱 오픈 빌리지는 죽산면으로의 귀농과 귀촌을 이끄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일상에 활력을 넣어 줄 규칙적인 계획을 실천하며 성과를 거두는 '리추얼 라이프'와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헬시 플래저'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러스틱 오픈 빌리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창의적인 공간임과 동시에 도심 속 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관광 거점의 공간이다. 죽산면의 특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식단을 제안하고 매달 축제의 장이 되는 '숨슴식당', 농촌에 정착해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귀농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살피 텃밭', 마지막으로 죽산면의 의료, 문화, 복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더하는 '도담 수업'을 통해 소면 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고자 한다. 위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이 직접 관리하며 주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관광객 및 농촌 정착에 관심이 있는 청년층과 소통의 장이 된다.

'러스틱 오픈 빌리지'를 죽산면의 대표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풍부해진 인적 자원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첨단 농업 시스템과 사회안전망 수준을 높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농복합지역 환경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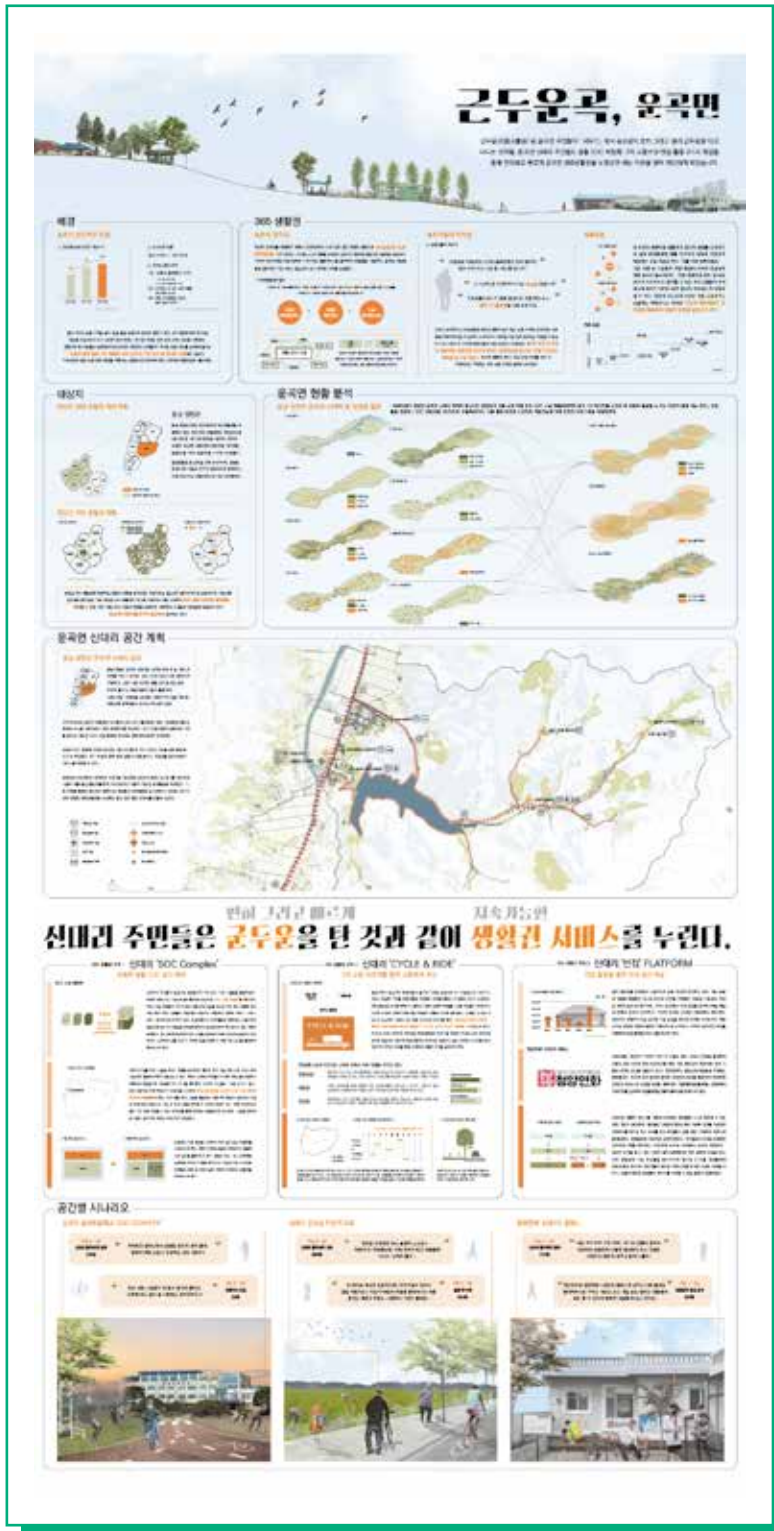
# 입선 근두운곡, 운곡면

서울대학교 | 유가현, 안준석

‘근두운곡(筋斗雲谷), 운곡면’은 충청남도 청양군 365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운곡면 신대리를 배경으로 한다.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편히 그리고 빠르게 근두운을 타고 다니는 모습처럼, 농촌의 배후 마을 주민들 또한 365생활권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농촌의 ‘리’ 단위의 생활권 전략을 제시한다.

이에 이번 계획은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개개인의 바람을 세 갈래의 큰 전략을 통해 묶어 냈다. 먼저 365 생활권 계획의 핵심 요소인 SOC 시설을 정량적인 분석과 적지 도출을 통해 보충 또는 복합적인 용도로 확장한다. 이후 각 SOC 시설을 ‘Cycle and Ride’ 개념을 통해 물리적으로 연결 하기도 하며, 지역의 고유한 자원인 ‘청양 연화’ 그룹과 연계를 한다. 마을 내 빈집을 활용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마을 주민에게는 SOC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이 정착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정착과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이번 계획안에서 다룬 문제점들은 운곡면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농촌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관광 위주의 농촌 계획에서 귀농 인구 및 주민들을 위한 농촌 재생으로 변화한 흐름을 직접적인 SOC 시설 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정량적인 분석과 지역 자원을 이용한 방법론은 많은 지역에서 응용해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입선 **댐마을 천천천**

경북대학교 | 김여진, 이휘주, 이효진, 이성민, 장대동

댐마을 천천천은 수물민 이주 공간인 대천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재치 있는 천의 반복으로 대천리에 풍요와 활력, 낭만을 불어넣어 대천리의 재생을 계획하였다. 살고 싶은 젊은 농촌이라는 주제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 재정의로 도출한 풍요, 활력, 낭만이라는 주요 키워드를 통해 작품 전체를 관통한다. 주요 키워드를 대천리와 연관 짓기 위해 풍요에는 천하태평, 활기에는 천생연분, 낭만에는 천진난만의 이름을 지어 천천천으로 반복되어 요약할 수 있는 전략을 완성하였다.

마을 주민, 즉 수물민들이 정착한 곳에서 풍요롭게, 천하태평할 수 있도록 주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서비스 질의 향상과 주민 불만 사항을 개선하였다.

귀농·귀촌을 위해 대천리를 찾는 사람들이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면서 대천리와 천생연분을 맺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자리, 창업 지원 센터 등을 통한 경제 활동 지원 서비스 연계 공간을 구축한다.

대천리 주변으로 위치한 다양한 관광 자원으로 인해 유입되는 관광객을 대천리로 끌어와 문화,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대천리의 낭만을 함께 천진난만 하고 재기 발랄하게 즐기며 마을 주민들도 고립되지 않고 외부인과 소통하며 발전하는 마을을 조성하였다.



## 입선 정보

대림대학교 | 이동희, 이재운, 전영권, 정택범, 박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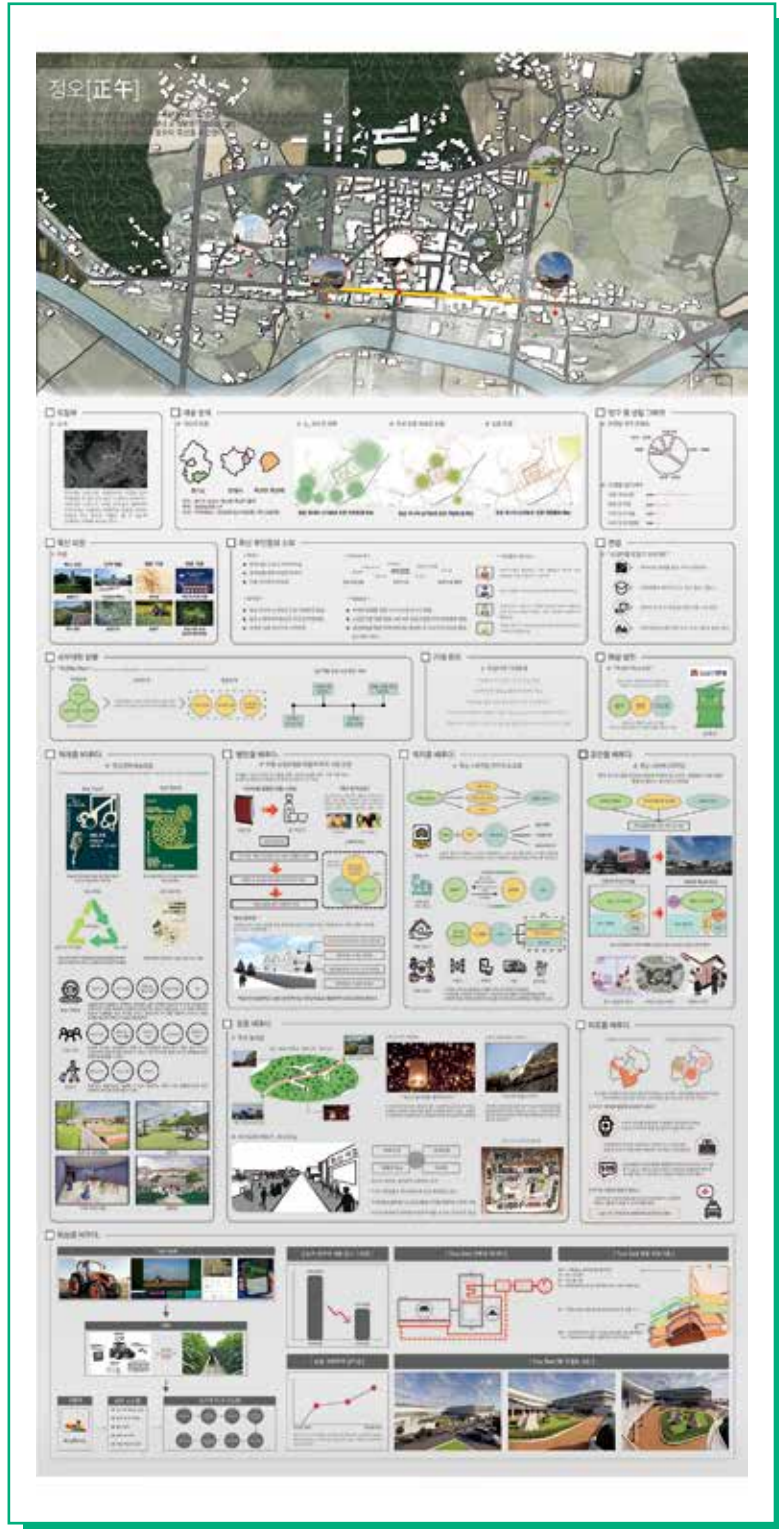
안성시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농촌공간 활성화 계획 추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간 네트워크 형성도 필요하며, 동부 생활권에서 인구·가구 분포가 가장 낮고, 특히 죽산리는 높은 노령화와 낮은 유소년 부양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상생하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주변 인적자원을 활용한 트렌디한 농촌을 생각했다. 이러한 상생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의 대학교와 산업단지 그리고 주민들의 연결점을 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심지와 농촌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며, 대학생들과 주민들을 연결시키고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문화공간이자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인 죽산 예술 문화공원, 주민과 주변 마을 그리고 산업단지가 함께 연결되어 죽산리의 쌀과 안성의 특산품을 함께 활용한 죽산 막걸리, 구독 서비스와 공유 서비스를 활용한 제공자와 이용자, 생산자와 구매자를 연결하여 유통 공간 활용한 여건 개선안을 생각했다.

또한 죽산리를 대표하는 거리인 죽산 돌레길과 죽리단길을 개설하여 행사·놀이 거리·맛집 등 즐거움과 재미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돌레길을 조성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베드는 지역 내의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성장하는 공간으로 임대 시스템과 농기계 테스트 공간, 씨앗 테스트 공간 등의 내부 시스템을 제안하여 젊은 층과 농촌에 연결점을 주며, 주민들은 가족 분뇨와 농작물 폐기물, 술지게미를 제공하여 신재생에너지로 바꾸어 퇴비나 비료로 활용하여 토양오염을 줄이도록 했다.



## 입선 **우후죽산, 샘솟는 마을, 샘솟는 마음**

한경대학교 | 김수현, 안세종, 안태경, 송유림, 홍유진

지리적으로 풍요롭기로 유명한 죽산리 위로는 비봉산, 아래는 죽산천 외 3개의 호수를 품은 형태로 전형적인 배산임수 형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현대에 발전에 맞추어 죽산리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고유·담백한 아이템을 모색해야 한다.

농촌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농촌의 경관 개선', '경제 활성화', '복지 정책 구성'과 같은 내용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죽산리 현장 답사를 통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의 방안으로 죽산천 공원을 중심으로 하였고 사람들의 쉼터를 조성하고자 했다. 공간이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에게 새롭게 제공되는 동선과 커뮤니티 공간은 마을에서 눈에 띄는 경관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고 마음 또한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변화할 수 있게 한다.

프로그램 아이템의 첫 번째 진행으로 주민들을 위한 돌봄 센터, 마을회관 의료장치, 스마트 방송 등의 구축으로 죽산리 기존 생활환경 개선과 인프라 발전을 실현하고자 했다. 두 번째로는 죽산천 공원을, 벽화사업, 학교 조경 개선 사업을 통해 새로운 환경과 공간을 조성하여 머물러 있던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죽산 한 달 살기 체험, 족욕 카페와 캠핑장, 다문화 페스티벌 등을 통해 외지인들을 끌어들이고 관광, 홍보 사업을 진행해 청년의 유입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상인이 함께하여 죽산 시장의 미래를 열게 될 한걸음 시장, 특산품 사업을 진행해 젊은 농촌,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입선 청양(靑陽)한 삶, 청량한 운곡(韻曲)

충남대학교 | 이정현, 김현지, 박성현, 박유원, 이용욱

현대 농촌은 근대화에 따른 사회변동으로 농촌은 높은 고령화율, 인구 규모 격감 등의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농촌 재생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수가 재정적 지원에 한정되어 있었다. 중앙 정책 방향의 변화로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거나, 마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화합 부재로 해당 사업이 정착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과도기적 흐름 속에서도 농촌 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더불어, 청양은 농촌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칠갑산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청량한 자연경관, 뛰어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신대리의 경우, 주거 생활권 내 편의 시설의 부재, 청년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이의 가치가 퇴색되었다.

이에 청양군 운곡면 자연의 청량함이 주민들의 삶에도 이어지길 바라며, "청양(靑陽)한 삶, 청량한 운곡(韻曲)"을 제안한다. '청양(靑陽)한 삶'은 농업 발전과 의료 및 복지의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의의를 둔다. 농업이 가진 다원적, 자연 순환적 특성을 활용한 마을 기반 산업, 6차 산업 전개 등을 통한 발전 기반을 설계하였다. '청량한 운곡(韻曲)'은 청년 유입 및 장기적인 정주를 도모하여, 흥이 넘치는 젊은 농촌 공간을 목표로 한다. 청년의 농촌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장기적인 정주로 이어가고자 하였다. 생활의 질적 개선과 동시에, 유입 주민과 기존 주민이 함께 소통하며 마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입선 **만경 해방일지**

서울대학교 | 허란, 전유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화영

하늘과 땅이 만나는 김제의 만경읍은 예로부터 유명한 곡창지대였다. 그러나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만경 해방일지는 그 이름처럼 만경이 현재 직면한 문제로부터 해방을 도우면서 생기를 되찾아,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거주민, 이주민, 외지인이라는 소재목을 활용하여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거주민;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마을'은 시설 구축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행복한 남리 마을을 지향한다. 다음, 이주민; '누구나 정착하고 싶은 마을'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면서 청년이 돌아오는 남리 마을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외지인; '누구나 놀러 오고 싶은 마을'은 만경과 남리를 이은 관광 콘텐츠와 90거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입선 일농일생(一農一生)

경기대학교 | 최원규, 신민섭, 이다나

현재 죽산면은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며, 인구 고령화의 문제를 크게 보았다. 또한 우리가 생각한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청년들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생긴 관심 부족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는 것들의 분석 과정을 통해서, 죽산리/장원리의 인구수가 높다는 점과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이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미래 중심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일농'의 계획은 죽산면의 역사자원 보존 상태 취약, 인구 고령화, 기본 인프라 부족이라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죽산면의 자원을 살린 다양한 테마공원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 공원들을 트램으로 연결하여 중심과 배후를 이어줌으로써 하나의 농촌을 이뤄낸다. 그 후 '일생'의 계획은 미래농업을 위한 스마트센터를 구축하여 첨단 스마트 농업기술 적용을 통한 죽산 농촌 경제를 활성화한다. 귀농·귀촌임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늘려 청년의 유입을 늘림으로써 오직 죽산면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뿐인 삶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2개로 우리의 목적을 담은 '일농일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전략으로 아름답고 쾌적하게 마련된 생활환경에서 죽산면 주민들은 경제적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교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죽산면은 농업특화 체계를 구축하여 죽산 농촌의 경제력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발전할 것이다. 이로써 죽산면은 자원을 살린 새로운 문화와 스마트 농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지역뿐 아니라 농촌지역 어디든 그곳을 보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농촌이 살아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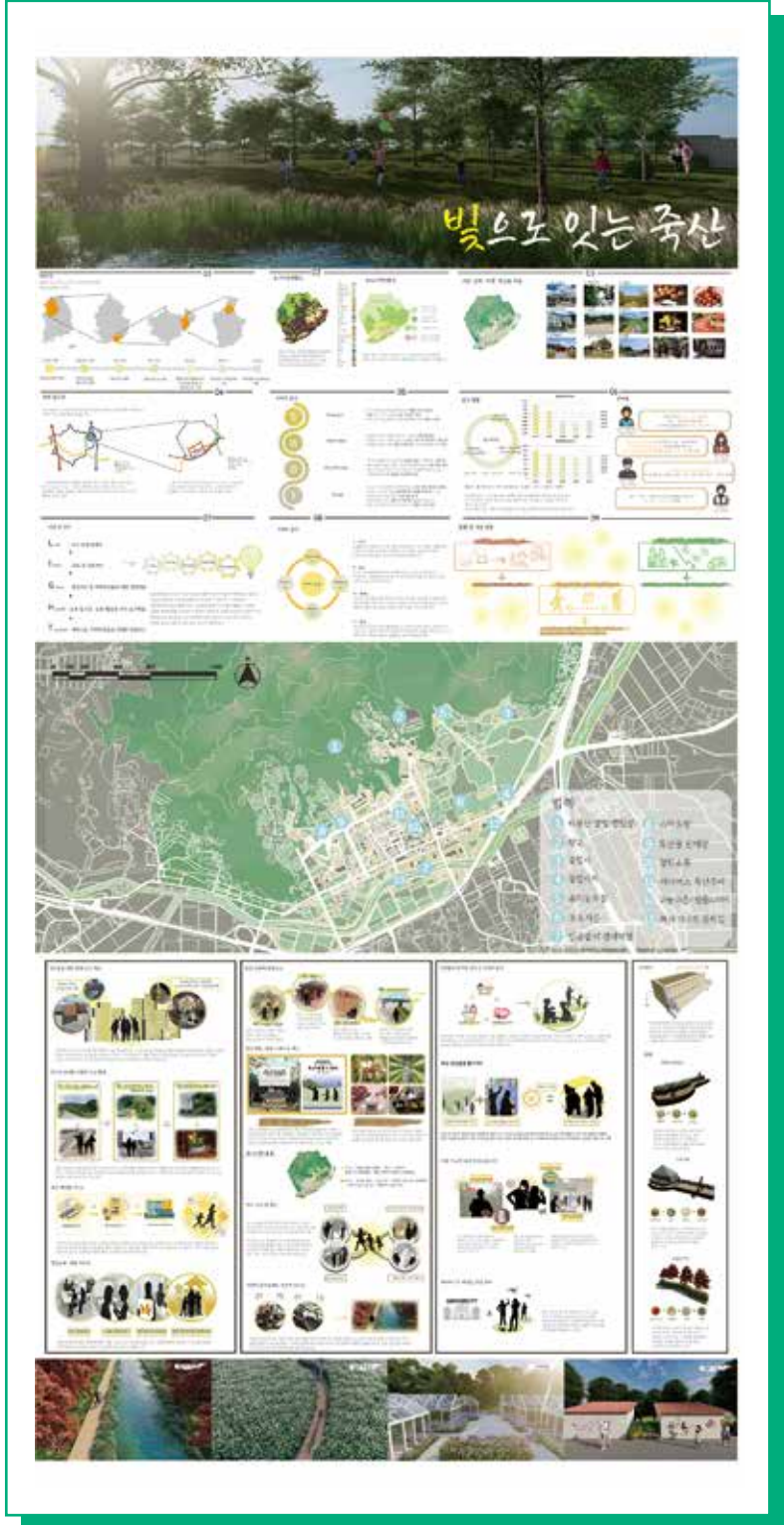
## 입선 LIGHT, 빛으로 잇는 죽산

상명대학교 | 심우성, 김태웅, 오승민, 이지수, 박원진

현재 죽산면은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며, 인구 고령화의 문제를 크게 보았다. 또한 우리가 생각한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청년들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생긴 관심 부족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는 것들의 분석 과정을 통해서, 죽산리/장원리의 인구수가 높다는 점과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이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미래 중심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일농'의 계획은 죽산면의 역사자원 보존 상태 취약, 인구 고령화, 기본 인프라 부족이라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죽산면의 자원을 살린 다양한 테마공원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 공원들을 트램으로 연결하여 중심과 배후를 이어줌으로써 하나의 농촌을 이뤄낸다. 그 후 '일생'의 계획은 미래농업을 위한 스마트센터를 구축하여 첨단 스마트 농업기술 적용을 통한 죽산 농촌 경제를 활성화한다. 귀농·귀촌임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늘려 청년의 유입을 늘림으로써 오직 죽산면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뿐인 삶을 만들어나간다. 이렇게 2개로 우리의 목적을 담은 '일농일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전략으로 아름답고 쾌적하게 마련된 생활환경에서 죽산면 주민들은 경제적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교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죽산면은 농업특화 체계를 구축하여 죽산 농촌의 경제력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발전할 것이다. 이로써 죽산면은 자원을 살린 새로운 문화와 스마트 농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지역뿐 아니라 농촌지역 어디든 그곳을 보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농촌이 살아나길 기대한다.



## 입선 구본신참(舊本新參): 농촌의 여유로움에 젊음의 활력을 담다

이화여자대학교 | 김연주, 김민영

농촌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젊은 인구의 감소는 보다 심각하며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이런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면 농촌 소멸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농촌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유출을 막을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는 저수지가 있고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고유 자원이 뚜렷한 지역이다. 신대 저수지를 기준으로 신대1리와 신대2리로 나누어져 있으며 신대1리는 운곡면 면 소재지로, 신대 2리는 농촌 체험 마을로 그 역할도 뚜렷하다. 그러나 신대2리는 교통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신대1리와 신대2리는 소통이 단절되어 있으며 고유 자원 역시 적절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

‘신대리 구본신참’은 신대리의 고유 자원을 활용하고 그 역할 유지하면서 젊은 인구를 이끌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는 계획이다. 신대1리를 ‘운곡면 생활 중심 지구’로 지정해 주요 생활 시설을 집중하고 교통 접근성을 높여 운곡면 주민들의 생활 중심지로 활용한다. 신대2리는 ‘농촌 체험 교육·관광 지구’로 지정해 대안 학교를 설립하고 인구 유입의 근간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신대 저수지 정비 및 관광화 사업’을 진행해 주민 편의를 향상하고 신대리를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 추가로 교통, 헬스케어, 로컬 마켓 등 생활 모바일을 서비스를 제공해 청양군 전체를 연결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 인구 유입, 지역 경제를 활성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유기적으로 이루어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출을 막아 농촌의 번영을 이끌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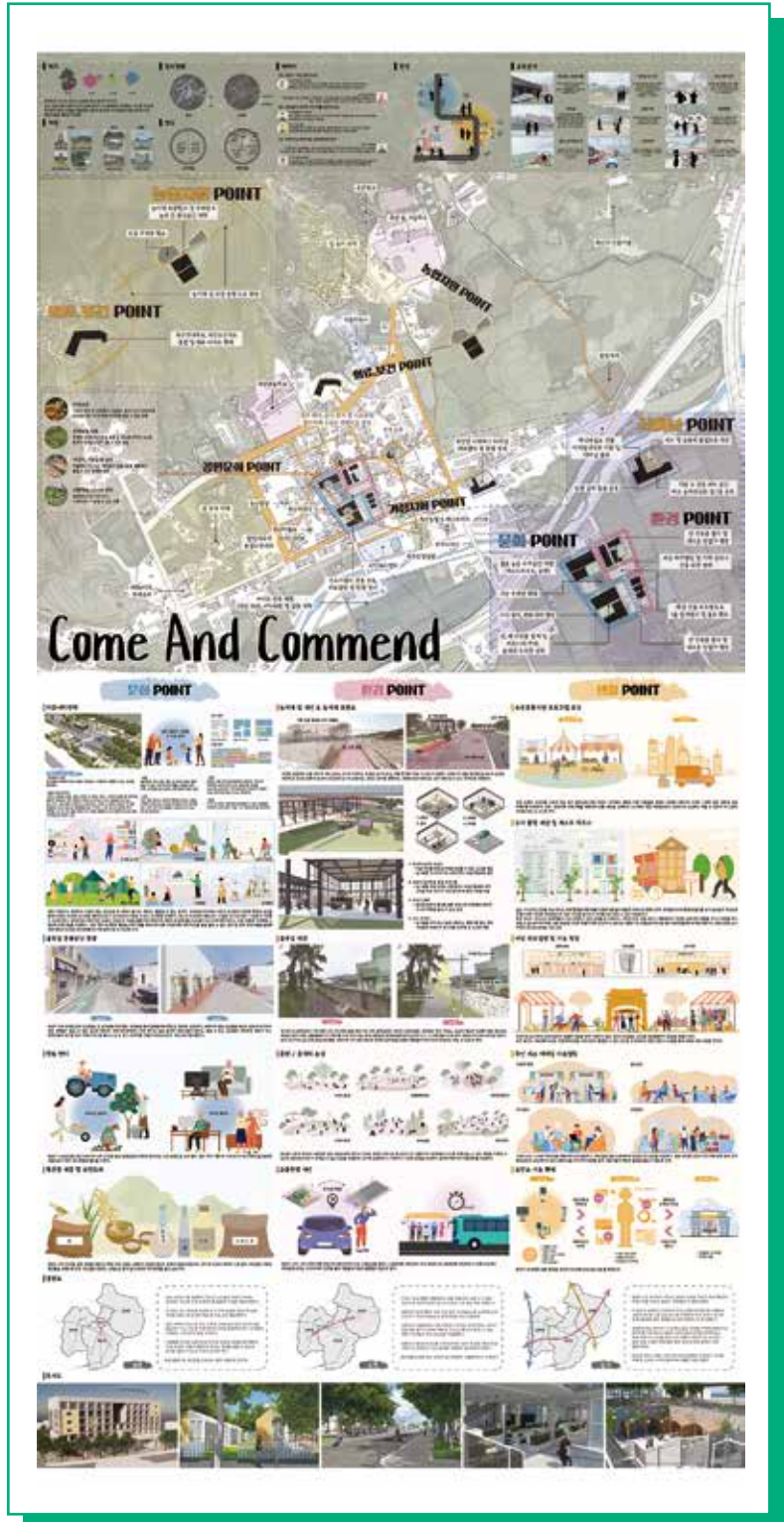
## 입선 Come And Commend

선문대학교 | 최현식, 신주연, 이건희, 이정원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죽산리의 주된 세대는 50대 이상의 인구로 이루어져 젊은 세대의 유입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가 즐기고, 활동할 만한 공간이 부족한 죽산리를 젊은 농촌을 탈바꿈할 계획을 세워보았다. 먼저, 죽산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 '환경', '생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문화'로는 젊은 세대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죽산리의 거점 공간으로 커뮤니티 센터를 계획하여 다양한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멘토, 멘티와 웰촌(WELCHON)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발전과 동시에 젊은 농촌을 만들려 한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린 동동주, 누룩 소금과 같은 특산품을 개발하여 공동체 중심의 경제적 공동 수입원을 만든다. 다음 '환경'에서는 죽산리의 주된 경제원인 농업과 관련된 개선 및 발전 방향으로 농기계 길을 넓혀 개선시키고, 농기계 보관소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돈되지 못했던 골목길과 교통 환경을 개선시키고, 다양한 컨셉을 가진 공원과 휴식공간을 계획하였다.

마지막 '생활'로는 농촌 유통지원프로그램인 온라인 시장 앱을 구축하면서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형성한다. 넓고 지저분했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며, 죽산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젊은 세대들을 죽산리로 유입시킨다. 죽산 시장과 버스터미널을 리모델링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 시켜 주된 세대와 앞으로 들어올 세대가 더 나은 의료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계획한 죽산을 주변의 일족, 삼죽과 함께 생활 환경 라인을 적용하여 동부생활권의 발전을 함께 이루려 한다. 죽산에 계획된 문화환경, 생활환경, 의료환경 등 일족과 삼죽에서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한강 수계를 따르는 '죽산 벨트'를 형성한다.



## 입선 이도향촌; 끊어진 마을에 선을 잇다

공주대학교 | 류세미, 최경현, 정승준, 최현태

사이트인 청양군 윤곡면 신대리 사자산 마을은 마을의 형태가 사자의 갈기와 비슷하다는 유래로 전해졌다. 이 갈기와 같은 형태의 사자산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좋은 자연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읍내와 다른 마을 과도 떨어져 있어 마치 외딴섬과 같은 고립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거주 인구의 대부분을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화가 진행되는 마을에는 물리적인 접근 성은 물론이고, 마을 내 의료, 상업, 문화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물리적 접근성이 부족한 만큼 생활 인프라를 채우는 데에 불편함이 있고, 마을정보 센터와 마을 홈페이지, 체험 마을과 같은 사자산 마을의 장점에 대한 홍보가 잘 안되어 비물리적 접근에도 어려움이 있어 점점 다양한 관계 속 소통의 선도 끊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사자산 마을에는 현재 마을정보 센터와 체험 마을을 두고 주민들이 외부인들과 함께 소통하려 하는 모습을 보아 마을 내부에서도 재생 의지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마을 내의 재생 의지라는 강점과 생활 인프라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변과의 연계를 거듭하고 소통이 부족한 마을과 마을, 도시와 농촌 간의 끊어진 선을 이어주고자 한다.



# 입선 도랑도랑

경상국립대학교 | 민동주

‘도랑도랑’은 동면의 장동리를 중심으로 정주형 마을들을 형성하여 주거 중심 지역으로 활용한다. 동면은 화순읍의 도심 권역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동면에서 장동리에 행정과 문화, 의료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장동리를 중심으로 각 테마별로 정주 마을을 형성한다. 정주 마을을 형성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들을 형성하여 동면이 화순읍 다음으로 주민들의 정주 환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한다.

**도랑도랑**

**대지 정보**

**동면 분석 사항**

1. 화순읍 중심적인 입지
2. 소양적인 마을들
3. 농심지역의 입지성
4. 화순읍 중심에 위치

**도랑도랑**

**동면 개발 계획**

**동면 마을 계획**

**북부권 대학마을 형성**

**북부권-정주마을 형성**

**중부권-교육마을 형성**

**남부권-노년인기 연계 마을 형성**

## 입선 POP-UP '창'

서울시립대학교 | 김민정, 김소윤, 김형준, 윤규빈

POP-UP '창'은 컨셉의 큰 틀이다. 창리 농촌 재생의 단계적 발전을 꾸며나가기 위함이다. 'POP'은 말 그대로 터뜨린다는 의미이며, 창리 내 부실한 부분을 강화하여 발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고, 가용한 공간을 찾아 물리적 환경의 부분 개선을 한다. 'UP'은 공동체 모델과 개선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창리만의 플랫폼 품을 구축하고 산업 간의 융화를 통해 농촌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단계다. 창리의 기존 자원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한 단계 'UP' 되는 상황을 그려보았다. 마지막 '창' 단계는 'POP'을 통해 개선되고, UP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화된 이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담아낸 창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입선 **고-있다**

선문대학교 | 이지은, 김은별, 박지숙, 윤수, 이한울

회화면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면으로 지리적으로 진전면과 구만면, 마암면과 접경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당항포 해전 대첩지를 기념한 당항포관광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회화면을 살펴보면 배둔리 부분으로 도시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도시 지역에는 시내버스 노선이 부족하지만 시외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에 불편함을 보완해 주고 있다. 또 도시 지역의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회화면의 인구 구조는 다른 면들에 비해 가장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높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청년들의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요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제안을 통해 노년층과 청년층이 어우러지는 건강한 농촌을 만들고자 한다. 기존 노후되어 있던 건물들을 재디자인하여 골목길을 형성하였고 농촌에서의 가장 큰 장점을 살리기 위해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사계절 산책로를 구성하고 사계절 산책로부터 문화센터 거리까지 이르는 산책코스를 만들어 관광객들의 유입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 기존 폐공장을 농촌 팩토리로 탈바꿈하여 원주민들과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청년들이 농촌에서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농촌 경제를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고-있다'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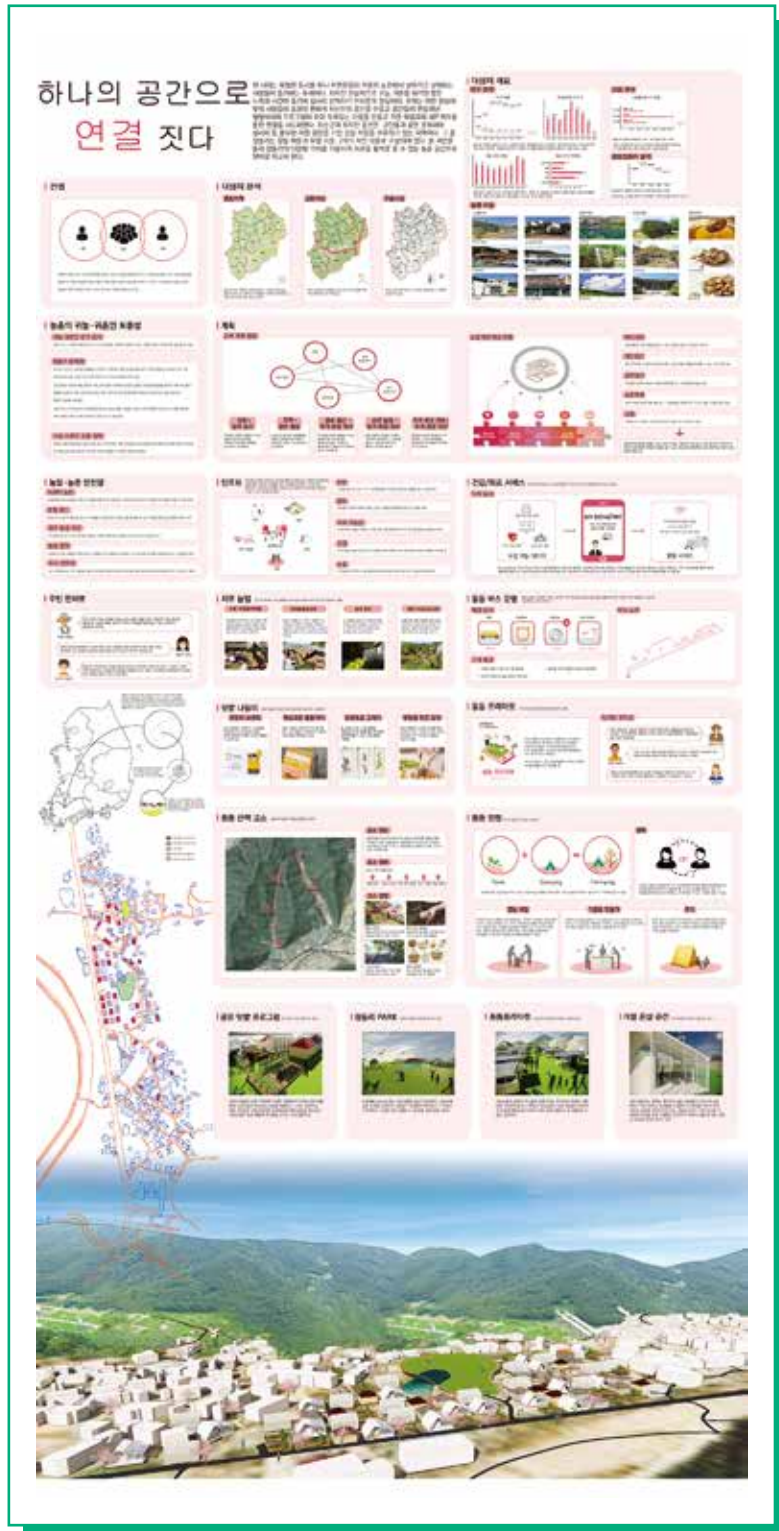


## 입선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 짓다

목포대학교 | 김예찬, 김소연

동리 마을을 처음 봤을 때 따뜻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잘 어울리는 동네였다. 본래의 찰동마을과 우평마을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의 마을로 합쳐지며 생겨난 장동리 마을은 현시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환경과 어울려 농촌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귀농 귀촌을 하긴엔 많은 노력과 시적이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 짓다]는 이러한 귀농, 귀촌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공간들이 만들어낸形形色색의 프로그램들이 모여 특색 있는 장동리 마을로 태어나고 기존 마을과 귀농 귀촌인들이 이어지는 마을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을 시도하였다.



## 입선 구비구비 구룡리에는요

홍익대학교 | 허석정, 이문주, 남영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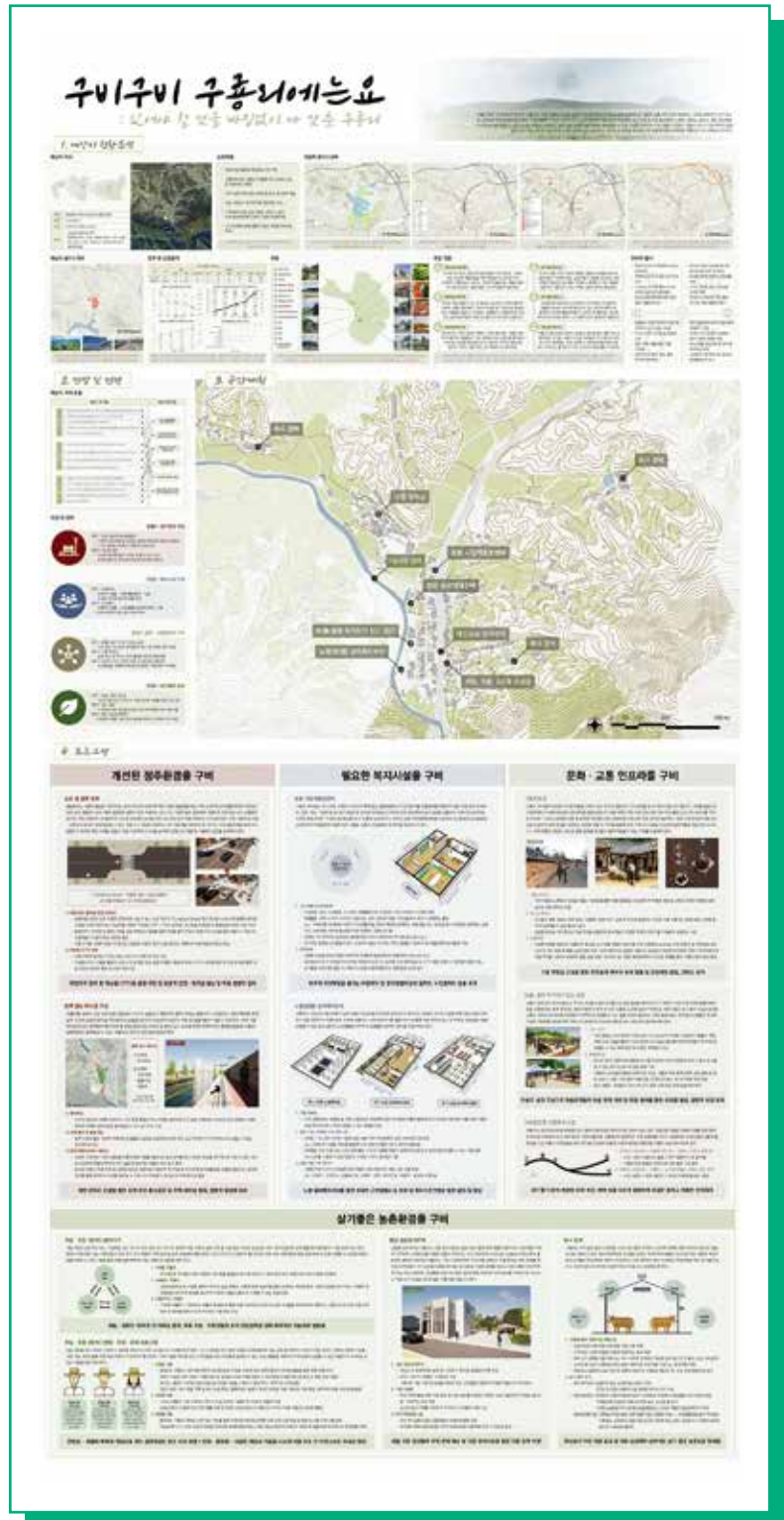
구룡리는 각종 생활 편의시설과 공공기관이 메인 도로인 청풍호로에 밀집해있고, 자동차 교통 여건 또한 편리하며 대사천, 농촌비점저감 바이오파크 등의 산수 자원과 한우, 약초 등의 특산물이 있다.

그러나 2020년의 금성면 인구는 2000년 대비 10.1% 감소하였으며 2020년의 금성면의 65세 이상 인구는 38.9%를 차지하고 있다. 구룡리 또한, 금성면의 인구문제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며 해당 문제가 금성면보다 더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마을 곳곳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장점들을 살려 마을 주민과 귀농/귀촌 이주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을 계획하고자 정주환경 개선, 복지시설 신설, 문화·교통 인프라 구축, 살기 좋은 농촌 네 가지 컨셉을 구상하였다.

이 네 가지 컨셉 속에 “물리적 환경 개선”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청풍호로 정온화, 대사천 정비, 복지센터 신설, 구룡 한옥길, 대상별 DRT, 기존 공원 정비, 축사 정비 등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했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이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거주민들에게 삶의 질이 향상되는 마을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귀농, 귀촌: 2단계, 대사천 지킴이, 정기적인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귀농, 귀촌 이주민들의 마을 적응 및 원주민들과의 화합 및 소통 여건을 조성하여 있어야 할 것들을 빠짐없이 다 갖춘[구비한] 매력적인 구룡리로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



# 입선 대천에 살어리랏다

대구가톨릭대학교 | 권예린, 김영비

‘대천에 살어리랏다’는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를 대상지로 하였다. 대천리는 관광자원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운문댐과 경관자원인 운문댐, 공암봉벽, 운문호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면 소재지로 우체국, 터미널이 있어 생활 soc가 잘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대도시로 둘러싸인 근교형 농촌으로 대구, 부산, 울산이 1시간 30분 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대천리는 농지가 부족하여 대천리 고유의 특산물도 부재한 상황이며 그로 인해 유입되는 귀농민이 없고 고령인구는 44.2%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대천리에 ‘overlay’ 기법을 도입시킨다. ‘청정하레이’는 운문댐과 대천리 환경을 보존하며 자연 아카이빙으로 대천리를 기록하고, 마을 활동가 프로그램으로 주민 일자리 창출을 한다. ‘정착하레이’는 귀농·귀촌 정착 강화 및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치유하레이’는 대천리만의 수자원과 산림경관을 활용하여 농촌관광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치유마을’을 조성하여 치유적 요소를 가진 치유농업, 원예치료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회복을 선물한다. 대천리는 특산물이 없어 유기농 먹거리를 재배하는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재배된 먹거리는 치유마을에도 제공하고 운문면 로컬푸드장에도 판매하여 수익창출을 한다.

‘대천에 살어리랏다’를 통해 기존의 대천리를 훼손하지 않고 발전시켜 대천리에 지속 가능한 자생적 시스템을 ‘overlay’하여 살고 싶은 대천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입선** '구룡구경' 구룡리에서 만나는 아홉가지 이야기 변화의 시작 (나, 너 그리고 우리)

백혜빈, 도종원, 조대윤, 신희정, 김진희

굽이굽이 산세 속에 위치한 금성면 구룡리는 제천시 중 장래 인구감소를 1위, 소멸 위험 진입 지역으로 마을의 존속, 그 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 본 구룡리는 각 가구마다 정성껏 화단을 가꾸어 형형색색의 골목을 가진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더욱이, 중앙/평택제천 고속도가 위치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한방'이라는 테마 자원을 보유하고 청풍호반 관광단지에 인접해 있는 등 다양한 기회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룡리에서 본 가능성들을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꾸준히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이 마을에 녹여 변화를 이끌어볼까 합니다.

우선, 생애 주기별 맞춤형 공간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마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한방'이라는 독특한 테마 자원을 이용하여 치유공간 조성으로 방문객들을 `쉼(휴식)'의 마을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룡마을이 다양한 취미생활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아늑한 공간으로 조성해 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로 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 입선 해죽해죽, 함께해(偕) 죽산

홍익대학교 | 홍영현, 안유진, 김주연, 이나현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죽산리는 죽주 산성, 안성 봉업사지 등 역사적인 장소를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죽산 터미널이 위치하고, 17번 국도가 지나가는 안성시 동부권의 중심지이다. 그러나 '동부권의 중심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문화시설, 교통 기반 시설, 의료시설 등의 기초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 내 다양한 관광자원과 관련된 개발이 미비하다. 청년층 인구감소로 인한 고령화와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 될 수 있고, 스스로 진행·계획할 수 있는 생활기반 시설 및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획해 '함께 살고 싶은 죽산'을 만들고자 한다.

다음으로, 풍부한 역사자원, 비교적 우수한 도심과의 접근성 그리고 농촌이라는 위치적 조건을 고려해 방문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들을 고안해 죽산만의 특색 있는 색을 입혀 '함께 즐기는 죽산'의 모습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농촌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귀농/귀촌 교육과 주택 보급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주민과 청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농업 지원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활력 넘치는 도시를 위해 모두가 '함께 세우는 죽산'을 기대한다.

이를 통해 죽산리는 안성시 동부권의 주요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며 위의 제시된 죽산의 모습은 '해죽해죽, 함께 해(偕), 죽산의 슬로건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해죽해죽'이라는 의태어 처럼 모두가 웃으며 지내는 지역상을 그려보았다.



## 입선 **둔둔함이 가득한 배둔리**

부산대학교 | 이지수, 이동현

배둔리 지역 개발의 슬로건은 '둔둔함이 가득한 배둔리'로 여기서 '둔둔'은 가득할 둔, 모을 둔을 사용하여 배둔리에 가득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사람과 경제적 풍요를 모을 것이라는 뜻이다. 배둔리는 다양한 SOC 자원과 경관 자원을 가졌음에도 많은 빈집, 지역 내 경관 관리 부실, 지역 경제 침체로 지역 활력이 떨어져가고 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슬로건처럼 배둔리가 가진 자원을 가꾸고 변화시켜 사람과 경제적 풍요를 이끌어오고자 한다.

배둔리 개발 컨셉은 개발 영역을 삶, 자연, 경제, 사람으로 나누고 각 영역이 서로 맞물려진 4개의 조각이 모여 '살고 싶은 젊은 농촌'이라는 하나의 그림이 완성시키는 퍼즐을 형상화하였다. 각 영역들이 다른 영역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퍼즐의 형태로 표현하여 배둔리 개발 계획들이 서로 다른 계획들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 이면서 순환적인 구조로 농촌의 현실에 맞는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자연 영역에서는 배둔천 산책로, 남파랑길, 당항만 둘레길 재정비와 조경 사업을 통해 배둔리가 보유한 아름다운 경관 자원을 가꾸어 주민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려 한다. 삶 영역에서는 빈집 살리기 프로그램을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남부 매립지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수변공원, 애완 동물 파크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방문객 유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생활 SOC 정비와 배둔리 내 다른 유휴지들도 활용해 생활 SOC 간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SOC 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사람 영역에서는 수요에 맞는 귀농 귀촌 프로그램을 조성하여 배둔리 내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 한다. 또한 농업, 원예업 체험형, 창업 지원형 프로그램을 통해 배둔리 내에서 지역 기반 산업인 두 산업을 체험하거나 창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배둔리 생활에 적응을 돕고, 귀농 귀촌 시 배둔리 내에서 경제적 기반 형성을 도와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돕는다. 경제 영역에서는 원예 치유를 활용한 체험형 공방, 배둔리의 쌀을 이용한 전통주, 우리 농산물(지역 특산물 매장)을 통해 배둔리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원예 치유 키트와 전통주의 경우 가공되지 않은 채 소비되어온 원재료를 가공하여 판매 함으로 원재료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대량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배둔리의 맞춤 전략이다. 또한 지역 내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위해 스낵프 지역상품권, 배둔리 내 먹거리, 볼거리를 소개하는 회화 레터 발행, 활력을 잃은 배둔 시장을 야시장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 입선 죽산 모꼬지 텃밭마을

서울대학교 | 여해린, 박소현

본 작품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읍을 대상지로 하여 텃밭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관리되지 않는 유휴부지와 그로 인한 경관 저하를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방치되고 잘 가꿔지지 않은 경작지를 잘 관리되는 땅으로 변화시키고 텃밭정원에서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하고, 유휴부지를 그린 인프라로 활용하며, 나아가 문화자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입선 씨유화순 (See you HwaSOON)

이세진, 김지은, 임준혁, 길은비, 소희진

머무르고 싶은 젊은 농촌 만들기 방안 (워크케이션) 워크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서 일을 하면서 여행지에서 휴가를 즐기는 근무형태를 뜻함.

네이버, 카카오, 롯데멤버스, CJ ENM 등의 기업에서는 '시공간을 스스로 결정하여 업무 효율 극대화'할 수 있는 워크케이션을 장려하고 있음. 각 지자체도 워크케이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특히, 제주는 수도권 소재 기업체 관계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케이션 유치에 나섰다. 부산도 지역 관광 콘텐츠 기관과 협업하여 '해운대 한 달 살기, 워크케이션 패키지'를 출시하였음.

한편, 농촌은 현재 고령화, 과소화, 지방 소멸의 악조건 속에서 젊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귀농 귀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을 농업인으로 양성하여 농촌의 정주인구로 정착시키려는 방안은 실질적인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청년을 '거주'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정책에서 '관계 인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함. 워크케이션은 직접적인 청년 유입 정책과는 구분되는 방안임. 워크케이션을 통하여 지역은 청년 친화적이고 청년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음.

농촌지역은 워크케이션 기반을 마련하면서 열악한 주거·정주여건과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그리고 농촌지역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통하여 청년층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창업 기회(식당, 카페 등)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활성화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입선 관계인구

공주대학교 | 송주영, 여동혁, 이재우

본 작품의 계획 대상지인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운곡면 소재지는 수려한 자연경관 어메니티인 신대 저수지와 신양천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 발전에 활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 인구가 떠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쇠락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관계 인구'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운곡면의 관계 인구 접근성을 활용한 본 계획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3UP(건강·경관·관계 인구) 러스틱 젊은 운곡 만들기' 사업을 계획하였다.

본 계획은 운곡면의 숨겨진 다양한 자원 가치를 활용하여 젊은 농촌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우선, 계속되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건강 UP, 경관 UP, 관계 인구 UP을 통해 생활 서비스 시설의 확충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귀농·귀촌과 청년들의 유입을 위한 농가 스테이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러스틱 라이프를 통해 관계 인구 유입을 증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여 관계 인구 유입', '걷기 길을 통한 건강 100세 기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소득 증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 복지 향상', '상업 가로 정비를 통한 지역 소득 증대 및 관계 인구 유입', '면 소재지에서 연계 마을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찾아와 살기 좋은 마을, 3UP 러스틱 젊은 운곡」을 제안하고자 한다.



## 입선 **같이의 가치**

한국교통대학교 | 양승민, 주진웅, 서정민, 최지영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는 당항만 내해 환경에 위치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포함한 관광·문화요소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이 제대로 활용 및 연계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및 인지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이의 가치” 프로젝트는 농촌, 주민, 관광 3가지를 중점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이웃 간의 소통을 통한 공동체 형성, 관광지의 활성화,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에 초점을 두었다.

농촌과 상생하며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고성을 만들기 위하여 <① 작물의 가치> 농작물과 함께 농촌 활성화(농작물 재배 체험/먹거리 장터/로컬푸드 판매 시스템 활성화), <② 귀농의 가치>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귀농·귀촌 가이드(한 지붕 세대공감 톨세어링/귀농·귀촌 아카데미), <③ 발전의 가치> 6차 산업형 특화 농공단지, <④ 영속의 가치>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촌마을 만들기/마을기업/청년 활동가 양성/마을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주민들이 만드는 열린 마을축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주민이 살기 좋은 경쟁력을 갖춘 고성을 만들기 위하여 <① 회복의 가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자연 산책로, <② 교육의 가치> 다양한 체험과 함께하는 청소년 수련관, <③ 안전의 가치> CPTED 기법을 활용한 농촌, <④ 소통의 가치> 배둔리 전용 SNS 소통 창구(두근두근 배둔 소개팅/농업 고수의 솔루션/배둔 행사 정복하기), <⑤ 참여의 가치> 마을을 발전시키는 배둔리 농촌 협동조합(커뮤니티 매핑/노인 프로그램), <⑥ 성장의 가치> 스타 농부 육성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시 찾는 고성을 만들기 위하여 <① 여행의 가치> 새로운 스타일의 공정여행, <② 추억의 가치> 회화면에서만 얻을 수 있는 추억(회화 샷/수상 레저와 함께하는 바닷속 이야기), <③ 해변의 가치>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보며 타는 해변 레일 바이크, <④ 오락의 가치> 전국 어디서든 고성에서 농사 짓기(고성 팜), <⑤ 축제의 가치> 당항포 포구에서 즐기는 제철 회 페스티벌, <⑥ 홍보의 가치> 회화면 마스코트 공룡, 회화와 회화하다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같이의 가치”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 기반 및 관광시설 확충-지역 공동체 수립-지역 연계망 구축-경제적 자립을 통한 발전 구조 구축을 순차적으로 계획하여, 배둔리 내·외부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각 가치와(제안한 프로그램) 연계한 정책을 통하여 “같이의 가치” 마을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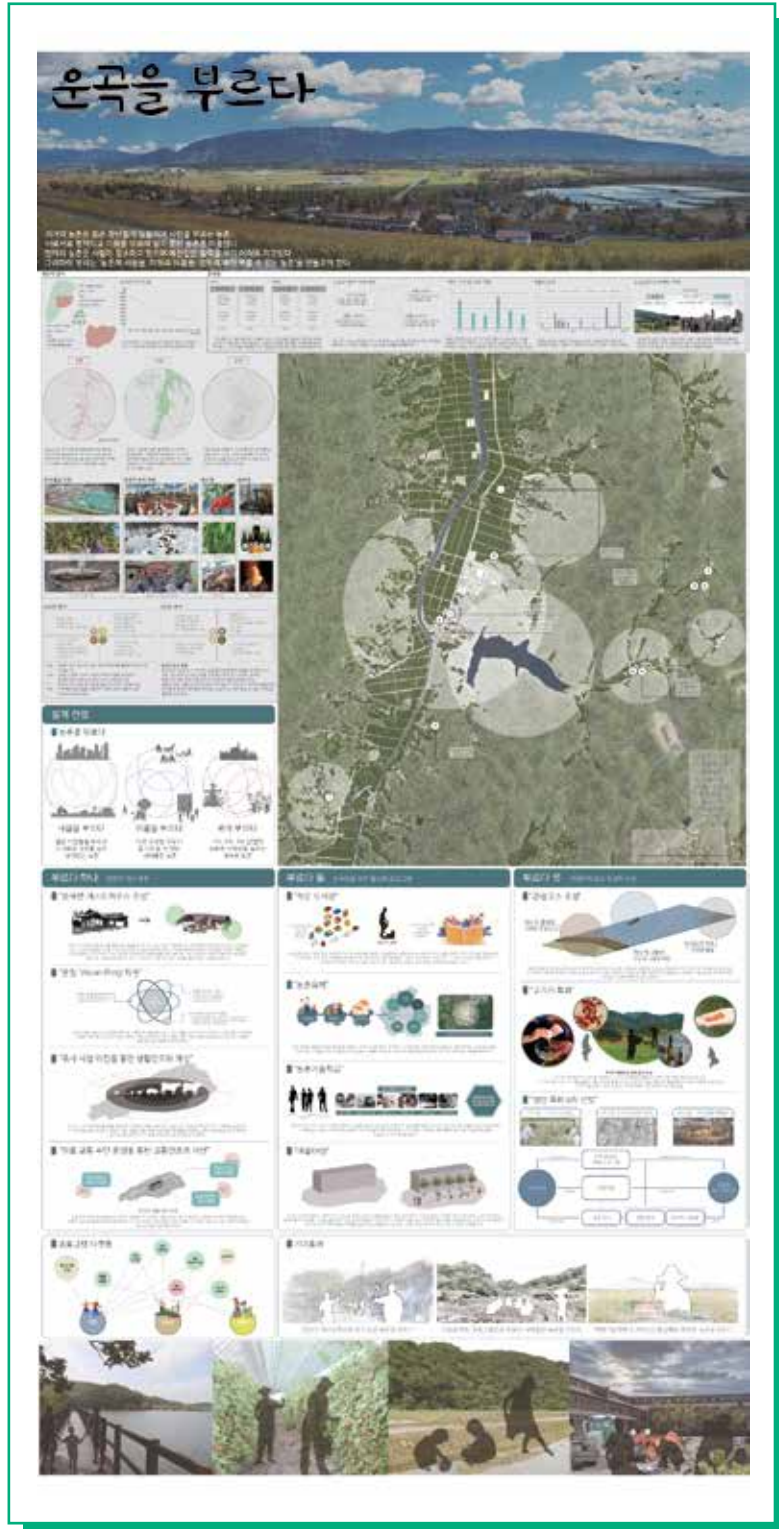
## 입선 **운곡을 부른다**

청주대학교 | 이태균, 이지선, 한재욱, 이규민, 이가영

우리가 생각한 농촌의 컨셉은 '부르다'로 '사람을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배가 부르다'를 목표로 잡았으며, '사람을 부르다'는 젊은 청년들의 유입을 고안하고 도시와의 교류를 늘려 생기 있는 농촌을 만들고자 했다.

'이름을 부르다'는 타겟 구성원 모두가 여유, 휴식, 관광, 문화 등을 즐기며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유대관계가 있는 농촌을 만들고자 했으며, '배가 부르다'는 1차, 2차, 3차 산업의 조화로 수익성을 높이며 지역 경제가 상생되는 배부른 농촌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운곡면 활성화 프로그램, 관광단지 조성 및 6차 산업 활성화를 계획했으며 그 내용으론 첫째, 인프라 개선에서 방치된 빈집을 이용한 '운곡면 게스트하우스 조성', 문화생활과 주민 간 교류 증진을 위한 '운링 타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축사 시설 이전', 지역 교통을 편리하게 해줄 '마을 교통수단 운영'이 있다. 둘째, 운곡면 활성화 프로그램에선 기존 도서관의 능력을 향상한 '작은 도서관', 도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농촌 유학', 귀농인과 기존 주민들을 위한 '농촌기술학교', 마을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마을 야장'이 있다. 셋째로, 관광단지 조성 및 6차 산업에는 신대저수지를 중심으로 운곡면 모곡리와 신대리를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조성하고, 마을 특산물인 '구기자'를 특화 시켜 청양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6차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 입선 **히죽히죽**

한경대학교 | 이용인, 김슬기, 박상아, 박재영, 이승주

현재 안성시 죽산면 내 최대 생활권인 죽산리는 모든 연령대가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시설과 기초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여 농촌주민의 삶을 저하시킨다. 풍부한 문화자원과 특산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역 자원의 관리·활용 미흡 등으로 단절된 농촌은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우며 이는 지역의 쇠퇴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과 활동을 통해 외부 지역과의 연계성을 이루고 지역 경제와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6.

# 진행과정

---

갤러리 /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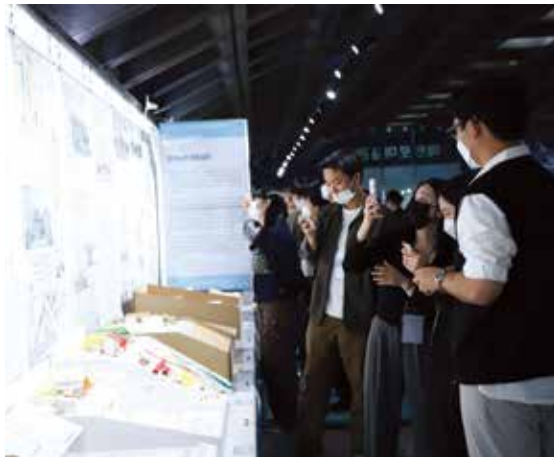
# 갤러리 제1차 심사



## 갤러리 제2차 심사



# 갤러리 시상식



포스터 2022 제20회 한국농촌계획대전 포스터

## 농촌 재생, 살고 싶은 젊은 농촌 만들기

<p><b>참가신청</b> 05. 30(월) - 07. 22(금) 18:00</p> <p><b>공모자격</b> 농어촌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인, 개인 또는 팀(5인 이내)으로 구성                  * 개인(팀)당 1개 작품만 등록 가능하며, 팀 구성 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함                  * 농촌 공간분석, 참여예산, 지역계획 및 디자인 등 각 분야 간 다양한 협업 권장</p> <p><b>신청방법</b> <a href="http://www.raise.go.kr/ruralplanning">www.raise.go.kr/ruralplanning</a></p> <p><b>공모대상지</b> 21년 선정 농촌협약 8개 대상지구 생활권 내 재시판 대상지 중 선택                  * 대상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p> <p><b>시상내역</b> 대 상(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500만원                  우수상(2) 농촌진흥청 장관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각 200만원                  장려상(4) 한국농촌계획학회 학회장상 각 100만원                  합선(다수) 한국농촌계획학회 학회장상 기념품</p>	<p><b>공모일정</b> 1차 작품접수 08. 01(월) - 08. 05(금) 18:00                  1차 상 사 08. 17(수)                  2차 작품접수 08. 24(수)                  2차 상 사 08. 24(수)                  수상작 발표 09. 01(목)                  전시 · 시상 09. 27(화) - 10. 03(일)</p>
--	--

**2022 제20회 한국농촌계획대전 운영사무국**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nuralarchi](https://open.kakao.com/o/0000000000) / 이메일 : [2022nuralarchi@gmail.com](mailto:2022nuralarchi@gmail.com)  
 주 소 : 대전 서구 갈매로 125-2F  
 연 락 처 : 070-8852-7136, 042-826-7810, 042-610-1940-2

|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계획학회
| 후원 한국농어촌연구원

# 2022 제20회 한국농촌계획대전

20th KOREAN RURAL PLANNING COMPETITION 2022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편집**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전화** 044-201-1553, 1558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2000-14  
**I S B N** 979-11-86183-46-5

\*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